

“부처님法을 전합시다!”

43일, 1167km, 부처님의 땅 인도. 상월결사가 마침내 인도순례를 마치고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향법회를 열었다. 순례단이 남긴 ‘43일’과 ‘1167km’라는 숫자는 그동안 한국불교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불사다. 그 어떤 결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대가 요구하는 불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도순례는 대중에게 많은 것을 던진다.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결사라는 점이 그 어떤 불사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주 자승 스님이 회향법회에서 던진 회향사는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운 일성이 아닐 수 없다. 거대한 태풍과 커다란 파도가 작은 바람과 작은 강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새삼 일깨운 일성인 것이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60명 비구에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 행복을 위해 떠나라’며 전법을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부여한 의무는 부처님법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야로 320km를 다시 맨발로 걸어 45년 동안 당신의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최선을 다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3월 23일, 조계사 마당엔 사부대중이 모였다. ‘사부대중’,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부처님 권속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이다. 사부대중은 힘차게 외쳤다. “부처님法을 전합시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hyunbulnews.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9호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43일 1167㎞ 도보순례를 완료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3월 23일 조계사에 마련된 회향법회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회향 아닌 '전법불사' 시작 알리다

조계종, 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

글=임은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평화, 생명존중을 발원하며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43일간 1167km를 도보 순례한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부처님이 태어나 전법하고 열반에 들었던 길을 걸으며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지고 돌아온 인도 순례단이 서울 우정국로에 발을 내딛자 이들의 신심과 원력의 발걸음을 찬탄하는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가 3월 23일 서울 조계사와 우정국로 일대에서 성대하게 봉행됐다. 종단의 수행자들이 43일간 부처님 성지를 참배하고 위대한 스승의 길을 따라 돌아온 만큼 전국에서 사부대중이 운집한 이날 회향법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대내외로 확산시키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조계종 신행 및 포교단체, 신도 등 3만 대중이 참석했으며 특히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과 함께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직접 순례단을 맞았다. 이태경 순례단원이 43일을 함께한 '상월부처님'을 들고 선두에 나섰고 각 조별로 종로 공평동 사거리에서부터 천천히 우정국로를 걸어 조계사에 입장했다.

진우 스님은 순례단을 대표한 범해 스님과 묘수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태경 불자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회주 자승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전법을 강조했다.

"2600여년 전 부처님께서는 60명 비구에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 행복을 위해 떠나라'며 전법을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부여한 의무는 부처님 법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야로 320km를 다시 맨발로 걸어가 45년 동안 당신의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최선을 다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회향법회서 공개된 '108원력문'에 맞춰 사부대중이 108배를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치사를 낭독하고 있다.

자승 스님 "부처님 법 전하자"
순례단 전원 108배로 마무리
진우 스님 "불교 중흥에 진력"
윤석열 대통령 축사 전하기도
조계사에 사부대중 3만명 운집

자승 스님은 특히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의무는 바로 전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라고 강조한 스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말해온 '성불하세요'라는 인사에 앞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라고 서로에게 말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지장보살께서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하셨듯이 우리도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를 세 번 외치고 단상을 내려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붓다의 길을 직접 걸은 여러분들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의 정통을 잇는 혜초 대사의 헌신이며 도의국사의 진정한 후예들"이라며 "수행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무탈하게 돌아왔으니 이는 종단의 기쁨이요, 홍복(弘福)"이라고 치하했다. 회주 자승 스님에게 존경의 마음도 전했다. 진우 스님은 "특별한 43일간 1167km의 붓다로드를 이끌어 주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오직 전법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회주 스님의 말씀처럼 종단 곳곳의 전법 포교 일선에서 활약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퇴전(不退轉)의 순례 정신으로 온 생명과 함께 수행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면서 "종단은 수행의 향기와 공덕을 선양하면서 전법의 길, 포교의 길, 그리고 불교 중흥의 길에 진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시작한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자승 스님이 말씀하신 원력의 씨를 뿌리자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라는 좋은 결실을 위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한다는 가르침"이라면서 "우리사회에 당면한 수많은 도전과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이날 회향식은 '상월결사108원력문' 영상에 맞춰 순례단의 108배 정진으로 여법하게 마무리됐다. 인도순례단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중승대 학인스님들은 함께 원력문에 맞춰 108배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축사

"원력의 씨 뿌리는 일 국민행복 위해 꼭 필요"



한국불교의 중흥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시작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을 축하드립니다.

43일 1167km의 위대한 대장정을 이끄신 자승 큰스님, 이번 대작불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온갖 어려움에도 묵묵히 결사의 정신을 실천하신 순례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불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이번 순례에서 자승 큰스님은 원력의 씨를 뿌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라는 좋은 결실을 위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원력의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국민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뜻깊은 회향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대중 일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중앙신도회관 2층
전화 : 02-733-7277 팩스 : 02-733-7278



"전법 없는 불교는 죽은 불교…전법이 우리 임무"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회향사 어떤 내용 담겼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60명 비구에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 행복을 위해 떠나라'며 전법을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부여한 의무는 부처님 법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후 보드가야로 320km를 다시 맨발로 걸어가 45년 동안 당신의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부처님 믿으라고 전법하는 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전법하라'입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사를 성불보다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하면 어떨까요.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하세요'를 다음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

부처님 법 통한 포교 원력 세워
한국불교 과제 '전법 위기' 극복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 떠나야"
새로운 포교장 열겠단 의지 담겨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인사 제안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회향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대중들에게 강조한 것은 바로 '전법'이었다. 43일, 1167km 인도순례의 목적이 바로 전법 원력을 추진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전법'은 자승 스님이 43일간 인도를 순례하기 훨씬 전부터 끊임없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2019년 11월 11일, 산중한처가 아닌 위례신도시 한가운데서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가 시작됐을 때, 중생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정진이 그 새로운 전법의 첫 불씨였다. 이후 2020년 자비순례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불교 중흥 동력을 이어간 자승 스님은 그동안의 한걸음 한 걸음을 인도순례에서 결집시켰다.

자승 스님은 43일간의 인도 순례 기간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전법의 중요성을 설법했다. 2월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봉행된 인도순례 입재법회에서 '21세기 신(新) 전도선언'을 선포한 스님은 "한국불교를 살릴 길은 전법을 통한 포교"라고 설파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뤄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대의 전도선언 선포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계기로 전법에 진력하는 원력을 세우자는 당부였다.

2월 22일 보드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자승 스님은 장군죽비 같이 준엄하게 설법을 이어가며 부처님 법을 통한 포교를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늘 포교만이 한국불교의 살길"이라며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음 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불교 중흥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3월 14일,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동화사 신도들을 위한 법문에서도 전법의 의미를 다시 짚었다. 이날 스님은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고 당부했다.

전법에 대한 의지는 이날 회향법회 회향사에서도 꾸준히 강조됐다. 자승 스님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임무는 "전법하라"라면서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라고 말했다.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것이 전법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을 향해 "성불은 다음생에 미루고, 금생에는 전법하자"고도 했다. 앞으로는 "성불하세요"대신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로 인사하자는 자승 스님의 말에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자승 스님의 회향사에 담긴 '전법'에는 불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성불은 내생에 미루고 금생엔 부처님 법 전하자"는 외침은 불교중흥을 이끄는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이날 회향사 후에는 전법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한국불교가 되자는 의지로 앞서 발표된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맞춰 108배를 하며 회향법회가 마무리됐다. 참회가 아니라 원력을 담아 전법과 중흥의 길에 오롯이 서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

"사부대중 함께 정진하며 전법·포교의 삶 살겠다"

부처님, 온 세상의 마음에 계시는 부처님, 저희를 존엄한 생명으로 받아주셨으니, 오늘도 신심과 원력을 세워 생명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절을 올립니다.

1.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2.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3.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4. 모든 존재는 결국 소멸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겠습니다.
5. 모든 존재는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6. 무상의 이치를 알아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7. 무아의 이치를 알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8.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고통스러워짐을 알아가겠습니다.
9.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우치겠습니다.
10. 욕심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다스리겠습니다.
11. 깨달음의 바른 길을 찾아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12. 삶을 향한 이기심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3. 나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 안에 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14. 상대를 가리지 않으며 조건 없이 베풀고 돕겠습니다.
15.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항상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16. 꿋꿋이 참고 견디며 고난을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17.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상에서 불교를 실천하겠습니다.
18. 인내와 근면을 실천하는 힘으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19. 진리를 향해 가행정진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20.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21. 마음의 어둠을 떨쳐내고 지혜의 광명을 간직하겠습니다.
22. 바른 관점으로 치우침 없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23. 바른 생각으로 정당한 도리에 맞게 사유하겠습니다.
24. 바른 언어로 모두에게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겠습니다.
25. 바른 행동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26. 바른 생활로 나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27. 바른 노력으로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8. 바른 의식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29. 바른 수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겠습니다.
30.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의 완전한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31. 정법의 아름다움을 온 누리에 환히 밝히겠습니다.
32. 말과 행동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상생하겠습니다.
33. 의지와 계율로 화합하여 함께 일하고 수행하겠습니다.
34. 생각과 이익으로 화합하여 함께 편안하게 나누겠습니다.
35. 모든 생명들이 서로를 존중하여 화합하겠습니다.
36. 살아있는 것들을 다치게 하거나 해치지 않겠습니다.
37. 잘못된 관계를 통해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38. 거짓말로 속이지 않아 진실한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39. 모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40. 마음을 다스려 탐욕스럽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41.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42. 정직하고 진실한 언행으로 모든 생명을 살피겠습니다.
43. 교만과 분노가 아닌 존중과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44. 재물을 기꺼이 나눠주고 진리를 기쁘게 전하겠습니다.
45. 환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46.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람들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겠습니다.
47.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처신하겠습니다.
48.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존재를 받들어 가겠습니다.
49. 사소한 행복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0.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51.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52. 누구나 갖고 싶은 것에는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53. 사부대중이 함께 참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54. 부처님을 따라 전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55. 부처님의 자유와 평화를 모두가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56. 국민과 사회에 바르고 온화하게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7.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8.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9.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60. 계층과 신분을 분별하지 않고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1.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2.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3.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64.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65. 모든 일에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66. 모두에게 차별 없이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67.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8.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지 않겠습니다.
69. 동물과 미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70.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71.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72.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73.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74.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5. 더욱 화합하고 성숙한 불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76. 불자들이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77. 불자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8. 자녀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79. 청소년들이 훌륭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0. 청년 대학생들이 활기차고 자유롭도록 돕겠습니다.
81. 중장년층이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2. 노인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3. 불자의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84. 모든 사람에게 언행이 일치된 불자가 되겠습니다.
85.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수지하고 독송하며 기억하겠습니다.
86. 굳건한 정진과 보시의 공덕을 널리 회향하겠습니다.
87.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88.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89. 종교와 문화, 정체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90. 가난을 멸시하거나 부자를 질시하지 않겠습니다.
91. 겉모습과 권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92. 잇속이 아니라 진실에 입각해 판단하겠습니다.
93. 화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94. 모두를 공평하게 보듬어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95. 세상 속 불교를 실천하여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
96. 각자의 수행이 한국불교의 자긍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97.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겠습니다.
98.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99. 유익한 신행문화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100. 회향의 공덕을 나누어 움직이는 불교를 이루겠습니다.
101.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102. 불제자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현시대에 실천하겠습니다.
103. 사부대중은 국민의 삶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104. 사부대중은 인간의 삶에서 생로병사를 함께하겠습니다.
105. 한결같은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106. 사부대중의 정진을 모아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107. 불법 만난 인연, 모든 생명을 축원하며 보답하겠습니다.
108. 부처님 법 전하는데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전법과 포교에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아름다운 변화









상월결사 43일간 인도순례,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중흥을 위한 위대한 대장정, 상월결사가 인도순례를 회향했다. 43일간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라 온갖 역경을 딛고 인도에는 희망을, 한국에는 긍지를 심었다. 이러한 감동의 인도 현장에서 소감발표회를 통해 순례단원으로 참여한 사부대중의 소회를 들었고, 이를 축약하여 독자들에게 전한다. 〈편집자 주〉

1조

범해 스님 - 이번 성지순례에서 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국내에 들어가서 포교일선에서 열심히 임해야 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중과 함께 순례하여 영광이다.

무상 스님 - 나이 제한에 걸리는데 회주스님의 배려로 순례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에 걸으면서 포교라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몸으로, 모습으로, 실행으로 임해야 한다고 느꼈다.

동명 스님 - 회주스님께서 2월 21일 부다가야 부처님 성도하신 그 자리에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중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앞날을 위한 전법의 선언을 하셨다.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상월'이라는 글자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린다.

호산 스님 - 평생 못 겪어봤던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 곳에서 겪게 되었다. 대중들이 저를 격려해 주었다. 그 힘으로 제가 다시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회향까지 함께 한 것은 결국 대중의 힘이다.

덕조 스님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 오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서다. 포교는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멀리 보지 않겠다.

노현 스님 - 첫째는 부지런해야 하고, 둘째는 '하심' 해야 하고, 셋째는 공심을 갖고 정진한다면 한국불교 중흥뿐만 아니라 세계불교, 중도를 이루는 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저는 앞으로 부지런함과 하심과 공심으로 열심히 정진하겠다.

종호 스님 - 사부대중 불교의 시작은 인도 부처님 성지 이곳에서 부터다. 저는 각기 원불을 모시고 매일 한 차례씩 기도하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주말을 이용해 1년에 100가족 이상 초청하여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선광 스님 -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한국불교 역사의 새로운 중흥을 열어가는 서막을 올린 것이다. 불교중흥을 위한 108원력문에 따른 상식의 신행생활을 지도하고, 신도들에게 알리고, 도반들에게 알려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겠다.

심우 스님 - 인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례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졌을 텐데 박수도 치고 꽃비도 뿌려줬다. 가슴 속에서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인도의 잠자고 있는 불교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우지 않았나 하는 감동으로 오늘까지 온 것 같다.

오심 스님 - 걸었다. 43일간 1167km를. 길은 거기 있었고 진리와 108번뇌도 거기에 있었다. 세상의 진리는 여기도 있었고 거기도 있었다. 더럽고 깨끗함도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었다. 알지 못하는 진리의 헤맴은 만 리의 허공을 휘저어도 길은 하나로 나아 있었다. 불교 중흥의 길 포교의 길, 세상 모든 곳의 평화를 위해, 세상 모든 이의 안락을 위해,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걸었고, 우린 지금도 계속 걸어야 하리라.

인산 스님 - 이 소중한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

연공 스님 - 상월결사 인도 순례는 저에게 큰 울림이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승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교라는 것은 절에 온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월결사 인도순례처럼 민중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조

설도 스님 - 먼저 한 분도 낙오없이 다 함께 회향하게 되어 너무 너무 기쁘고 환희롭다. 저는 40일간 뭔가 열심히 구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얻음이 없는 특별함을 구했다. 이 특별함으로 포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겠다.

원명 스님 - 순례를 하다 누군가 방귀를 뀌면 한국같으면 짜증을 낼텐데 이번에는 따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부대중이 이런 힘으로 뭉친다면 거기에 자기의 간절한 원력이 함께 한다면 한국불교 중흥뿐만 아니라 세계불교를 선도하는 한국불교가 될 것이다.

환풍 스님 - 어느 때는 부처님이 되어보고 부처님이 제가 되었다. 또 어떨 때는 부처님과 저만을 바라보면서 걸었다. 거기에서 답은 '대중 가운데 너보다 더 힘들지 아니한 대중이 어디 있겠는가' 였다. 걷다 보니 장엄 적멸보궁이 아닌 곳이 없었다.

태성 스님 - 회주스님께서 전법을 위해 떠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사르나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비구들이여 떠나라'는 말과 너무나 일치하여 제 마음 깊이 남았다. 귀국하면 열심히 예불, 기도 하고 전법 포교를 열심히 하겠다.

항명 스님 - 와서 보니 불교 발생지는 흔적만 남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반겨주는 주민들을 봤을 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다. 이번 상월순례가 꺼져가는 인도불교의 새로운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진오 스님 - 인도인들의 충격적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울분도 느꼈다. 불자마을에서 불교기를 들고 '우리도 불자다'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 힘이 되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이주자들에게 은혜 갚고자 한다.

본오 스님 - 순례 대중은 흘러갔다.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앞물결을 따라 흘렀고 뒷물결에 떠밀려서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불교가 불가역의 큰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 경주 열암곡 도감이라는 소명을 안고 대중의 뜻을 모으는데 나서겠다.

영일 스님 - 정광고 교법사 연가를 모두 써서 왔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얻어간다. 부처님과 구법승들을 생각하면서 전법 포교의 확고한 신념이 충만해졌다. 불연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데 매진하겠다.

대우 스님 - 한국불교가 침체되고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 올해 우리 스님 출가를 보니 사미, 사미니 해서 서른 아홉명이었다. 한국불교가 정말 다시 한 번 중흥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종단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겠다.

하원 스님 - 어느 순간부터 숙영지에 가면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 스스로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부끄러웠다. 한국불자님들이 성지마다 박수 쳐주시는 것에 신심이 났고, 부끄러웠다. 제 미약한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하다.

혜장 스님 - 부처님 법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인도사람들의 환영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끄러움, 불편함에 투덜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부끄러움의 연속이었다. 이 부끄러움이 퇴색될 때 또 다른 순례의 길에 서 있을 것이다.

3조

법원 스님 - 이번 순례를 제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제 돌아가면 그동안의 삶을 좀 내려놓고 중생과 함께하며 삶을 살겠다.

제민 스님 - 제가 아마도 2살 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한 60년을 걸은 것 같은데 걷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다. 부처님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하겠다.

현해 스님 - '네 자신에게 의지하고 불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을 이번 인도순례 기간 동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부처님 7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한 꼬리표를 달고 매 순간 깨어 있겠다.

허허 스님 - 성지순례를 하면 기쁨과 환희심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슬픔으로 변했다. 결론은 지도자였다. 인도 불가촉천민들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트 한 권이나 연필 한 자루라도 보시를 해야 하겠다.

선지 스님 - 성지순례를 하면서 설렘이 비통함과 좌절감으로 바뀌었다. 한국불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그것을 해내었을 때가 아닌가.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지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겠다는 원을 세웠다.

덕현 스님 -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며 당당함이 생겼다. 햇빛에 타고, 마른 우리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이 당당함, 아름다움이 국내에 있는 우리 스님들과 불자님들한테도 전해지길 바란다.

지불 스님 - 처음엔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인도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 하지만 자유로운 그 모습을 보았다. 더 많은 인도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순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갈무리하여 전법 포교가 되도록 힘쓰겠다.

법정 스님 - 이번 인도순례가 재발심의 계기가 되었고 돌아가서는 포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붓다로드를 걸으며 느꼈던 환희심과 재발심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밀엄 스님 - 한철, 반철 정진 잘했다. 감사하다.

보원 스님 - 한 말씀 드리겠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4조

설암 스님 - 4조 스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우리가 무차 평등, 또 마음 방생, 또 생명 존중, 불교중흥의 상월결사 정신을 잘 지니고 또 주변에 권하면서 살겠다. 감사하다.

제정 스님 - 제가 태어나서 최고 잘한 것 중 하나가 부처님 성지를 도보로 걸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적으로만 치우친 공리공론의 불교철학으로는 불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 상월결사 정신으로 한국불교는 충분히 살 수 있다.

탄묵 스님 - 묵언으로 대중에게 마음만을 전하겠다.

탄무 스님 - 인도를 처음 왔다. 저는 걸으면서 항상 '걷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기원정사에서 회향을 할 수 있어서 기뻤다. 고맙다.

탄호 스님 - 걸으면서 상월결사의 결기를 어떻게 남기면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걷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되며 후대가 가치가 있도록 느끼게 해야 한다. 제 밥값 하겠다.

탄하 스님 - 몸과 마음을 챙겨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이번 결사를 통해서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겠다.

도림 스님 - 이번 순례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러웠다. 제 의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순례가 저에게 큰 수확이었다.

보월 스님 - 19년 전 적멸보궁을 참배하며 부처님 성지를 도보로 참배하는 원을 세웠다. 그 꿈이 이번에 이루어져서 너무 좋았다. 길 위에서 함께 자고, 먹고, 걸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불자님들께 공유하고 나누겠다.

탄학 스님 -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43일 동안 걸으면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가셨구나' 하고 알게 됐다.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겠다.

문종 스님 - 걸으면서 전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결국, 전법도 인간 대 인간, 사람 관계의 연속성이다. 방법들은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고 경험을 빅데이터화 하여 활용하면 된다. 이번 순례에서 얻은 바가 크다.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 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팩스 (051)403-1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가슴 뭉클한 감동, 전법 포교로 이어가자’









5조

삼조 스님 - 묵언으로 대중에게 마음만을 전하겠다.

각만 스님 - 부처님 열반하신 지 2600여 년이 흘렀지만 우리가 부처님 땅을 걸음으로써 부처님 시선으로 농민들,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앞으로 경전읽고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법본 스님 - 인도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과연 ‘내가 그들의 환영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라고 되물었다. 40여 일 동안 꽃과 박수를 받은 그 값어치를 한국으로 돌아가서 포교 전법하는데 사용하겠다.

보성 스님 - 순례하면서 늘 감사했고 행복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수행하면서 살겠다. 감사하다.

시관 스님 - 더불어 함께 해서 감사했고, 더불어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더불어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도봉 스님 - 인도순례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안일하고 방일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이번 성지순례, 도보순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살겠다.

능원 스님 - 템플스테이나 사찰음식, 명상 프로그램을 한 차원 높여 21세기 문화를 선도하여야 한다. 우리 문화가 전세계로 나가야 불교중흥이 되지 않겠나. 화두는 ‘그럼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

각일 스님 - 나 자신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 여행이었던 것 같다. 저에게 꿈과 희망,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6조

묘수 스님 - 참담했던 것은 비구니 승단에 대한 것이다. 한국불교 비구니가 가장 활성화됐을 때 수행했고, 스승도 많았다. 사부대중 중 가장 참담해질 것은 비구니 승단이 아닐까는 걱정을 했다.

지해 스님 -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

현조 스님 - 제 불찰로 다리를 다쳐 중간에 함께 못 한 것을 대중에 참회드린다. 마음공부를 아주 많이 한 것 같다. 한국에 가서 주지 소임을 열심히 살면서 포교를 열심히 하겠다.

원해 스님 - 우리가 걸었던 이 인연으로 인도에도 생명 존중과 불교 중흥이, 붓다가 길을 걷듯 길 위에서 부처님의 법이 다시 피어났으면 좋겠다.

정혜 스님 - 사부대중의,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휠체어를 타고라도 ‘끝까지 함께 하자’ 는 회주스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 ‘불교중흥’ 하면 막연했다. 그런데 사부대중과 정진을 하면서 ‘한국불교 중흥이 세계불교도 중흥시킬 수 있는 발걸음이구나’ 는 확신이 들었다.

해인 스님 - 저도 정말 원 없이 걸었고, 원 없이 기도했고, 또 원 없이 행복했다. 이제 돌아가면 제 자리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포교를 열심히 하겠다.

수문 스님 -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같이 정진하면서 걸었던 대중의 힘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더 열심히 마무리 잘 짓도록 노력하겠다.

원준 스님 - 아름다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향기로운 꽃을 뿌려주며 환호하는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축원을 올렸다. “모든 생명의 인연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훌륭한 공양 게송이면서 축원문이었다.

선해 스님 - ‘상월결사’ 수행공동체가 유유자적하게 계시던 스님들을, 한송이 한송이 꽃이 모여서 결집된 것처럼 만들었다. 그 법 향기를 찾아서 우리는 걸음을 걸었다. 그 걸음 속에서 불교 미래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

도연 스님 - 8년 동안 발원하여,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시골인데도 이렇게 수행하는 불자가 있구나’ 는 감동을 느꼈다. 상월결사의 4대 결사 정신과 108원력문, 새벽에 했던 발원문을 갖고 제 남은 생에 열심히 정진하겠다.

덕진 스님 - 현지인들을 보며 사람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롯이 그것으로 인해 수행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었다.

7조

이태경 - 먼저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스님들과 동행할 수 있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순례단을 반겨주는 인도인들의 환영은 큰 힘이 되었고 순례가 갖는 의미 수행정진 · 불교중흥 · 국민화합 · 세계평화의 4대 결사를 마음에 되새겼다.

성계순 -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우리 7조 조장님 마음과 같다. 저는 매 순간마다 환희심에 진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것 같다.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간다.

김정숙 - 43일 동안 걷고 난 제 느낌은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이 싹 들 것이라는 믿음과 환희심이다. 감사했다.

백금선 - 묵언으로 대중에게 마음만을 전하겠다.

강덕순 - 저는 인도에 와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를 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선한 눈빛과 아름다운 미소, 우리나라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었다. 인도 오기를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

정유림 - 26살에 인도순례에 동참한 것이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다. 이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항상 베풀면서 젊은 불자들에게 포교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7조에서 봉사하시고 챙겨주신 조장님과 묵묵히 든든하게 지켜주신 거사님들께 감사드린다.

8조

정충래 - 지난 4년간 있었던 일련의 순례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다짐했던 것들을 ‘우리 불교가 달라졌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회향에 힘쓰겠다.

주윤식 - 저는 인도 오기 전부터 ‘인도 불교가 왜 망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었고, 이번에 기회로 삼았다. 사부대중이 과연 부처님 법대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성찰의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하는 바람이다.

이영규 -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한국의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회향하기도 전인데 인도에서 벤치마킹하여 순례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 릴레이 붐이 한국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형규 - 신문사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센터를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심이 있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길러내어 그 토대로 다문화 포교에 나서겠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으며, 저 자신도 3년간 준비했던 부분들이 원만하게 회향돼 기쁘게 생각한다.

이규민 - 부처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데를 다니셨다. ‘나는 어떤 삶을 이후에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살아야겠다’ 고 다짐했다.

조석주 - 묵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 상월결사의 뜻에 맞게끔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원력을 가지고 행동 하겠다.

노덕현 기자가 노덕현 기자에게 묻다

‘한국불교 할 수 있다. 전법 합시다!’

Q. 인도에서 불교는?

A. 흔히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졌다, 힌두교에 흡수되었다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았다. 불가촉천민들에게는 계급과 신분의 한계를 넘는 희망이었고, 불교공동체는 삶의 터전이었다. 가진 것이 적지만 순례단을 환영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에서 빈자일등의 정성이 느껴졌고, 낮은 계급 출신임에도 불자로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에서 한국불자의 한명으로 배울 점 또한 많았다.

Q 순례단을 곁에서 보며 느낀 점은?

A. 70이 넘은 고령의 스님들부터, 20대의 청년 불자들까지 모두 똑같이 정진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선했다. 순례단이 방일할 때는 회주스님의 경책이 있었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가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잘 알기에 오히려 미소로 대하며 도반이 되었다.

Q.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A. 43일간 1167km의 인도순례가 가능한 것은 사부대중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다. 불교중흥의 길 또한 같다. 사부대중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스승이자 지도자인 회주 자승 스님부터 순례단, 뒷바라지를 하는 지원단, 그리고 언론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단까지 한마음이었다. 한국불교도 마찬가지다.

Q. 43일간 어려운 점은?

A. 낯선 환경이라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은 신심과 원력을 세우는 동기가 되었다. 보도는 하지 못했지만, 부상자도 있었고, 행선이 어려운 이들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끝내 이겨냈다. 간절함이 있으면 모든 역경은 이겨낼 수 있고 하나의 기회가 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고통도, 환희의 순간도 그렇기에, 그때 그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이 흐트러 질 때면 경책하는 스승과 함께 하는 도반들이 있고, 스스로 간절함이 있으면 못 이겨낼 것이 없다.

Q. 취재에서 느낀 점은?

A. 불교언론의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포교사라는 사명도 지니고 있다.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위대한 불사의 참여자로서 하나라도 더 현장의 분위기와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열과 성을 다했지만, 마지막 귀국길에서는 아쉬움도 있었다. 상월결사는 인도순례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결사 정신의 실천을 위해 불교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각오를 세웠다.

한국=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⑥ 카필라바스투부터 조계사까지



Bhagavan Budh ki karuna ho!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셨다!

네팔 룸비니에서 인도 쉬라바스티까지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잊혀진 순례길을 세상에 드러낸 순례단은 3월 16일도 행선을 계속했다.

농촌인만큼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순박하다. 땔감인 소똥을 지고 가는 여성,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염소떼, 그리고 누렇게 익은 밀밭 등등에서 부처님 당시의 인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행선을 거듭하던 순례단이 멈추는 때가 있다. 바로 이런 마을주민들이 공양을 올릴 때다. 행선을 시작한 순례단의 첫 휴식장소였던 바자하 마을에서는 새벽 3시부터 분주함이 느껴졌다. 이른 새벽부터 순례단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이들이었다.

순례는 과거의 허물어진 탑이나 건물을 보기보다 그 흔적 속에 담긴 인간 붓다의 고뇌를 느끼고 그 발자취를 따라 가르침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그 순수한 목적이 이뤄진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큰 원을 세워 실천하는 정진만이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감동으로 전환된다.

순례의 공덕을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회향하고자 하는 순례단은 이들의 공양을 겸허하게 받았다.

3월 17일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희망으로 변한 곳을 다시 한번 찾았다. 새벽 2시부터 행선을 시작한 순례단은 데바루아 마을에 당도했다. 이날 순례단의 쉼터는 다른 곳이었지만, 마을 주민이었던 마누스 쿠마르 고톰 씨의 초대로 그의 진료소 앞으로 옮겨졌다. 힌두교 내에서 불가촉천민이었던 마누스 쿠마르 고톰 씨는 불교로 개종한 이후 신분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어려서 공부를 잘했지만 계급의 한계를 느꼈던 그는 델리에서 인도불교소사이어티를 만나 개종했다. 카스트 내에서는 불가촉천민을 의미하는 성을 지녀 어디가든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개종하며 부처님과 같은 고톰(고타마)으로 바꾸고 새 기회를 얻었다.

새벽 환영 나온 인도불자
‘부처님 가피내렸다’ 연호
印정부 佛성지 개발 성과

그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처럼 데바루아 마을에서 가까운 쿠시나가르를 먼저 도보로 순례했다. 이 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발심한 그는 네팔 룸비니 등도 순례했다. 순례하며 그는 의사가 되기를 발원했고 이후 의학공부를 열심히 하여 꿈을 이뤘다. 의사로서 더 많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불가촉천민인 고향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내려와 진료소를 차렸다. 20년간의 삶을 지켜본 아들 하르 세라지 고톰(20) 씨도 아버지의 뜻을 좇아 현재 델리대에서 의학을 배우고 있다. 이날은 아내와 14살 된 둘째 아들 원스 라지 고톰과 함께 환영 나왔다.

마누스 쿠마르 씨는 “개종 전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평등을 설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 불교를 믿게 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며 “불자로서 한국에서 순례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꼭 우리집에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누스 쿠마르 씨를 비롯한 인도 불교소사이어티(The Buddhist Society of INDIA) 회원들은 우리네 카카오톡과 같은 와츠앱을 통하여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인도 현지 신문부터 각종 매체 소식을 서로 전하고, 순례단의 위치도 소통한다. 이에 따라 데바루아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주민들까지 3일 전 이 권역으로 순례단이 행선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3월 16일 숙영지 위치도 확인했다. 꽃 등 공양물을 사느라 늦어 이날 저녁예불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순례단의 도착시간을 계산하여 다시 새벽 3시에 모였다.

인도불자들의 환호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신 쉬라바스티로 향하는 인도순례단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월 18일 38일차 행선으로 싯다르트 나가르의 지기나마피에서 발람푸르의 타루와까지 25km를 행선했다. 지금까지 순례단이 이동한 거리는 939km, 차량 이동 거리를 제하고도 900여 km를 걸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행선한 순례단에게 남은 것은 불교 중흥에 대한 간절한 원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불자들의 응원은 순례단을 힘나게 했다.

순례단을 맞은 인도불자들은 새벽부터 부처님 가피를 외치며 순례단을 기분 좋게 했다. 순례단의 시작은 어김없이 새벽 2시 도량석과 종송으로 시작됐다. 행선을 이어간 순례단은 새벽 4시 하리발단푸르에서 인도불자들의 응원을 접했다. 새벽 2시부터 기다린 마을사람들은 순례단이 당도하자 ‘바그봔 부다 키 카루나 호!’ (Bhagavan Budh ki karuna ho)를 연호했다.

‘바그봔’ (Bhagavan)은 여래십호(如來十號) 중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이라는 ‘세존(世尊)’ 의 인도말이다. ‘보드’ (Budh)는 ‘붓다’, ‘키’ (ki)는 ‘~의’ ‘~에서’, ‘카루나’ (karuna)는 ‘자비(慈悲)’ 의 ‘비’ (悲), ‘호’ (ho)는 ‘~다’ 등 어미다. 쉽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셨다’ 로 풀이된다.

인도불자들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바그봔 부다 키’ (세존 부처님께서)를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카루나 호’ (가피를 주셨다)라고 화답한다.

순례단을 응원 나온 이들은 소식을 들어 순례단이 먼 거리를 걸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함께 합송하는 ‘카르나 호’ 가 마치 응원 구호 같이 들린다. 순례 초반부에 만난 인도불자들은 ‘나모 붓다야’ 라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면 순례 후반부에서는 ‘카루나 호’ 를 합송하며 순례단이 힘을 내게 했다.

이러한 응원을 바탕으로 순례단은 3월 20일 쉬라바스티에 도착했다. 천불화현탑을 참배하고, 기원정사에서 도보 정진을 회향한 사부대중은 ‘전법의 길’ 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사부대중은 회향 발원문에서 “오늘 상월결사 인도순례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세상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며 중생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다”면서 “우리의 수행과 신행으로 불교중흥을 성취하고 불법을 만난 인연, 모든 생명을 축원하여 보답할 것이며 사부대중이 함께 전법의 길을 힘차게 나서겠다”고 서원했다.

순례단 사부대중은 법회 후 조계종 다례재 및 순례단 인연영가 천도재로 정진을 마무리했다. 특히 천도재에서는 금강경을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합송하며 전법에 마음을 모았다. 인도정부는 인도순례단을 환송하며 부처님성지 공항 및 대학건설 등을 약속했다.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 순례단 뒤로는 찬란한 무지개가 피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23일 조계사에 당도하여 인도에서 발견한 불교중흥의 희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법의 길을 나섰다. 한국의 불자들은 순례단이 가슴에 안고 부처님 성지를 모두 돈 ‘상월부처님’ 을 통하여 그 원력을 접할 수 있다. 구법승들이 성보를 한국에 모셔왔듯, ‘상월부처님’ 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불교중흥 원력을 담은 상징이다. 또한 생활 속 실천 강령인 108원력문을 통해서도 상월결사의 의지를 접할 수 있다. 〈끝〉

한국불교, 인도를 장엄하다

조계종 총무원 · 주인도대사관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서 특별전

수교 50주년 교류행사 하이라이트 연등회, 미디어아트, 사진 등 전시 진우 스님 "불교 멋과 맛 체험하길" 인도 학생들 韓불교 체험 '엄지 척'

인도 뉴델리=신성민 기자



조계종과 주인도 한국대사관은 3월 22일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 을 개막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이 개막 커팅식을 하는 모습.



주경 스님과 범종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전시장을 라운딩 하고 있다.



인경체험을 끝낸 인도 현지 학생이 자신이 작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화교류 공덕으로 한국과 인도가 부강하고 국민들은 안락하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무궁하게 발전해 세계를 이끌어 가고 불교인이 날로 늘어 부처님처럼 모두 자비로운 사람들 되어 날마다 평화롭고 행복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동환 스님의 화청이 부처님의 나라 인도 수도 델리 한 복판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과 인도의 우호 증진을 발원한 동환 스님의 화청에 사부대중은 합장하고 경청했다.

연등회, 산지승원, 수행 등 한국의 불교문화를 인도에 소개하는 특별 전시가 인도에서 열렸다. 동진(東進)해 한반도에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1700년 동안 사상, 문화의 열매를 맺어 다시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에 소개된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과 주인도 한국대사관(대사 장재복)은 3월 22일 인도 뉴델리 인도국립현대미술관(NGMA)에서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 특별전을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운 스님, 장재복 주인도대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조명희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 김병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 한국과 인도의 연결고리"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의 진수를 체험하길 권했다.

진우 스님은 공동개회사에서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는 인도로부터 전해진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 문화가 인도 국민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문화교류 행사 전시회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그 가르침을 이어 온 한국의 전통문화를 만끽하시길 기원한다. 나아가 한국불교의 멋과 맛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복 주인도대사도 공동개회사를 통해 "4세기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한국인의 생활방식, 사상과 예술,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불교를 언급하지 않고서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상찬하며 "불교는 한국과 인도의 영원한 연결고리로 두 나라의 파트너십의 기반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가 긴밀한 우정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템수나라 트라파티 인도국립현대미술관장은 환영사에서 "불교는 인도와 한국에서 문화 형성의 중요한 원천이었다"면서 "이번 전시는 한국불교와 인도불교의 문화적 유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우호를 기원했다. 주경 스님은 "전 세계 불교도에 있어 인도는 진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이며 마음의 고향"이라며 "오늘의 우호 행사를 계기로 인도와 한국불교계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연대와 협력의 토대를 쌓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문화 면면 알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의 전통등과 한국 불교의례의 상징인 괘불을 매개로 한 미디어아트가 소개된다. 전통등은 연꽃등과 전통 법구인 사물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장엄등이 전시됐으며, 미디어아트는 부석사와 화엄사, 은해사의 괘불을 소재로 한 작품 3점을 선보인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인 하지권 작가의 작품 73점도 인도인을 만난다. '한국불교, 인도를 걷다' 를 소주제로 열리는 사진전은 석불과 수행자의 삶,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유네스코 등재 불교문화재가 소개된다.

이에 대해 문화사업단 덕운 스님은 "이번 특별전에는 등간, 대형 장엄등과 연꽃등, 연등회 참가단체가 직접 만든 행렬등과 연등행렬을 재현한 닥종이 인형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또한 사진전에서는 한국불교 수행자의 삶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전통불교문화체험으로써의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석불, 유네스코 등재 산지승원(Sansa) 등의 사진을 보실 수 있다"면서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전통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인도 Z세대 "K-불교 알게 됐어요!"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전시회는 개막부터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K-컬쳐' 에 매료된 젊은 인도 현지 학생들이 많았다.

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는 야시타 씨는 "역사학을 전공한 학생으로 델리대에서 현재 불교를 연구 중이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불화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전해졌는데, 불교가 한국에 전해져서 어떻게 변화되고 정착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전시였다. 개인적으로 올해 열리는 전시 중 단연 최고"라고 밝혔다.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전시를 찾은 학생들도 많았다. 델리대 자율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안젤리와 하위카 씨는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불교 경전을 인쇄해보는 경험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부남후알, 기타, 만디, 심른, 아디쉬리, 애리시타 씨는 한국불교 전통등에 매료됐다. 이들은 "한국드라마, 음악을 좋아해서 한국문화를 자주 접했지만, 템플스테이나 연등회는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연등회의 전통등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특별전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달 간 열리며, 전시 기간 중에는 인경 체험,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식재료 알기=나를 아는 것 사찰음식은 수행과도 맞닿아"

문화사업단, 찬디왈라 조리대학서 사찰음식 강연

"사찰음식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과 같습니다."

한국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한국불교 특유의 식문화와 음식관에 대해 전했다. 인도의 미래 쉐프들은 스님의 강의를 경청하며 한국불교의 정신을 알아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은 3월 23일 인도 현지 조리학교인 찬디왈라 조리대학에서 정관 스님을 강사로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관 스님은 한국불교 특유 사찰음식의 정의와 음식관, 수행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수행자들을 위한 음식"이라고 정의하며 "수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음식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으로 수행하고 정각(正覺)에 이르렀음을 상기했다.

정관 스님은 "유미죽을 공양받은 붓다는 49일 정진해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에 이르렀다. 정각 이후 붓다는 '고행이 전부가 아니다. 잠자고 먹고 수행하자' 고 했다"면서 "정신과 육체적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음식은 곧 에너지"라고 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이 곧 수행"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음식을 요리한다는 것은 곧 식재료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식재료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길러졌는지 등을 바로 알아야 그 재료를 어떻게 조리할 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관 스님은 "식재료를 알아가는 것과 나 자신을 알아가는 수행은 같다. 저의 경우에는 사찰음식은 깨달음으로 이르는 수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붓다는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일종식, 탁발공양을 권했다. 한국불교의 발우공양은 붓다의 지혜가 있다. 내가 먹을만큼의 음식을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는 것"이라며 "붓다의 자연보호 생명존중 사상을 음식문화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대한 개론 강의 이후에는 스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표고버섯조청졸임과 두부장채소겉절이를 시연했다.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에 현지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잔 싱(호텔조리학부 2학년) 씨는 "한국의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서 강의 전 관심이 많았다"면서 "향후 제 요리 레퍼토리가 더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 강의 한국불교 식문화, 정신 전달해 고엔카大, 한국문화원서 시연도

강의에 앞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운 스님은 R.K.반다리 찬디왈라대 조리대학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덕운 스님은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매년 한식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식에 관심이 높은 찬디왈라대를 방문해 사찰음식 강의를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강을 계기로 한식콘테스트 우승자들에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관 스님은 고엔카대학-르꼬르동 블루 인디아(3월 24일)와 주인도 한국문화원에서도 사찰음식 강연회를 진행한다.

인도 뉴델리=신성민 기자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찬디왈라 조리대학서 사찰음식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화합·수행으로 성불 향해 나아가자”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취임

3월 23일 구인사서 취임법회
종정예하 “정법을 수행하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실천하며, 화합과 수행으로 우리의 목표인 성불을 향해 나아가자.”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덕수 스님의 취임 일성이다. 천태종은 3월 23일 오전 10시 충북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취임법회에서 도용 종정예하는 “정법을 수행해야 한다. 불법을 잘 키워 나가면 관음신앙을 널리 펼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취임한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중심으로 종무행정을 잘 펼쳐주길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과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도록 힘쓰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무엇보다 화합과 질서로 지금 이 시기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주어진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하며, 매일 마음을 닦아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장 진덕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금일 대한불교천태종 사부대중이 제20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하며 부종수교와 광도중생의 원력을 굳건히 하고자 고하오니 대자대비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종단의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화합하며 법고창신의 지혜로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길 서원하옵니다”라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원로원장 정산 스님도 축사를 통해 “신임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젊은 시절 구인사로 입산해 바위 같은 원력으로 수행자의 기품을 정립하면서 정진에 매진하시고, 종단의 대소사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다”면서 “덕수 스님께서는 종단을 더욱 결속하고 발전되게 해 불자·전국 사찰신도회·종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승묘법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총무부장 갈수 스님의 사회 아래 △삼귀의례 △국운융창기원 △찬불가(천태합창단) △반야심경 봉독 △상월원각대조사 법어(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고불문 △종정예하 법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 수행이력 소개(교무부장 도웅 스님) △꽃다발 증정(영춘 태광사 전하람 어린이) △취임사 △축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덕수 스님은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2013년 제2급 종사(宗師) 법계를 품수했다. 스님은 동국대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서 수학했으며, 총무원 규정부장·교무부장·총무부장, 8·9·10·11·14대 종의회 의원 등 종단의 여러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최근에는 구인사 국제선원장과 종정 사서실장을 지냈다. 또한 청주 명장사·부산 삼광사와 광명사를 비롯한 종단 사찰의 주지직을 맡아 각종 불사와 전법 교화에 매진했으며,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이사·천태불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종단의 교학 발전에 힘썼다.

종단의 대소사를 맡아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정신으로 수행에 전념해온 덕수 스님은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수차례 역임하며 교도소 교화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1986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1999년 국방부장관 표창·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바 있다.

“대행선사 우리말 선시·게송, 생활포교 실천 사례”

김종진 교수, 3월 18일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대행선사 ‘게송·선시’ 77수 분석
자연 이미지 활용, 수행 이해 높여
민요적 가락 표현, 전달력 강화
“선사의 선시는 한국·현대적 게송”
동광 스님, 〈논궤〉 저술 문제 논의

대행 선사가 생전에 남긴 우리말 선시와 게송이 “생활 속 수행과 포교의 실천이자 전통 게송을 계승한 한국적, 현대적 게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3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1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대행 선사 게송·선시의 문학적 탐색’을 발표하고 대행 선사의 게송과 선시를 문학적으로 분석했다. 그간 대행 선사의 게송과 선시를 수행적, 포교학적 등으로 조명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문학적으로 구조와 표현을 연구한 논문은 이례적이다.

김종진 교수는 〈한마음요전〉 ‘게송·선시’ 편에 수록된 대행 선사의 게송·선시 77수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선사의 게송과 선시가 한마음, 주인공 등 핵심어를 통해 마음공부 3단계를 시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행 선시는 득도의 순간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 수행의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했다. 여기에 친근한 자연물을 활용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 게송과 다르다”라며 “대행 선사는 전달력을 높이는 시적 구조를 활용했고, 개별 게송에 특색 있는 표현 방식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행 선사는 자연 순환과 재생의 시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으며, 민요적 가락으로 전달력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한마음요전〉에 쓰인 편명으로서 ‘게송’은 대행 선사가 시적 구조를 가지는 시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의식보다는 법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읊어낸 법문의 시적 형태”라며 “선사의 모든 작품은 게송의 전통을 따른 한국적 우리말 게송이자 현대적 게송”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선사의 게송에는 압축과 상징, 비유로써 시적 비약을 이루는 예도 적지 않다. 이는 옛 선사들이 격외의 일구를 던짐으로서 발심과 증득의 계기를 만드는 전통적 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는 “불립문자의 선적 비의(秘意)를 화두로 제시해 독자나 청중을 계발하는 대행 선사의 기법”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김 교수는 대행 선사의 선시와 게송이 문화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님오신날, 안거 결제·해제일에 한 문구나 시구를 발표하는 20세기 후반에 대행 선사는 우리말 법어와 선게를 제시하되 민요적 속성을 활용해 직접 구연했다는 사실은 문화사적으로 특기할 만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음요전〉 ‘게송·선시’ 편의 77수는 대행 선사의 사상과 개성이 담긴 우리 시대의 철리시(哲理詩)이자 선시”라면서 “선사의 수행은 생활 속 수행을 지향했는데, 대중을 위한 우리말 게송은 생활 포교·수행의 실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빙교수 동광 스님이 ‘〈논궤〉는 외도의 궤변인가-디그나가의 바수반두의 저작 불인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3월18일에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14회 계절발표회에서 김종진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마음선원 지원 불사과정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은 ‘혜근이 받든 대행 선사의 법문을 혜근이 기록함’이란 주제를 통해 진주지원 창건 과정과 대행 선사의 관련 법문을 대중들에게 설명했다.

학술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대행선연구원의 학술지 〈한마음연구〉 10집이 출간됐는데, 현재는 학진 등재후보지 이지만 내년에는 등재지로의 승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유익한 논문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다시 마음을 새겨 공부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천년고찰 고운사 이젠 가상현실서 만난다

3월 17일, 메타버스 구축 설명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기대 높여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가 메타버스를 통한 대중 소통에 나선다. 다양한 불교 전통 문화를 지역 특화 콘텐츠로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운사는 3월 17일 경내 우화루에서 ‘고운사 메타버스 설명회 및 데이터 구축 작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운사 메타버스 및 데이터 구축작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이다. 경북과 전북, 서울 등 3개 지자체에서 18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며 2년 간 약 9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고운사는 ‘천년고찰 고운사’를 주제로 경내를 디지털 3D로 구축, 가상공간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발우공양, 108배, 탑돌이 등의 체험을 다양한 VR과 AR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다나미디어는 경북 의성 스마트팩토리, AI기반 DX전문기업인 에프원소프트와 협력, 더욱 완성도 높은 고운사 메타버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불교계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운사 부주지 정우 스님은 “고운사 메타버스 개발로 지역 관광산업의 질이 높아지고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가상체험을 통해 힐링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고운사 부주지 정우 스님, 남대현 경북도청 메타버스 프로젝트팀장, 전영훈 의성군혁신전략팀장, 이동격 다나미디어 대표, 이일우 에프원소프트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고운사는 경내 우화루에서 ‘고운사 메타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3월 13일 지정 예고
전적 〈수능엄경의해〉권9~15도

고려시대에 조성된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수능엄경의해〉 권9~15 등 4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월 13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14세기에 제작된 보살상이다. 이 보살좌상은 갸름한 얼굴에 복스러운 얼굴 표정, 보계와 귀걸이, 고개를 앞으로 내민 구부정한 자세 등의 표현에서 고려 후기 전통양식으로 이해되는 일군(一群)의 보살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화재청은 “다소 좁고 왜소한 어깨, 긴 허리, 높은 무릎 등의 표현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변화하는 전통양식을 보여준다”면서 “이 같은 양식의 보살좌상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데 반해 드물게 금동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복장에서 발견된 중수발원문에 보이는 기록을 통해 그 내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인도 승려 반라밀제가 중국 당나라로 전래·한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10권을 중국 남송의 함휘(咸輝, ?~?)가 30권으로 엮은 주해서(註解書) 중 권9~15에 해당하는 경전이다. 해당 경전의 간행시기·간행처, 간행자 등을 적은 각 권말의 간기(刊記)를 통해 조선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경판을 만들어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경판은 현재 전하지 않고, 이 경판으로 인출한 인경본(印經本)도 많지 않다. 때문에 지정 예고 대상인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전 30권 판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양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유일한 권수로 희귀성이 있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 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봉축위 봉축표어·포스터 발표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와 연등회 포스터가 공개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이하 봉축위)는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표어로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Peace of the Mind, World of the Buddha)’을 선정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한 일상을 이겨내온 국민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봉축위는 “개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세상이며,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치유와 안정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고 궁극의 평화인 부처님 세상을 이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처럼 연등회를 포함한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각자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움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원, 4기 불교크리에이터 모집

4월 7일까지 접수…5명 선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뉴미디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불교 크리에이터 4기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불교를 소재로 한 웹툰, 카드뉴스, 영상, 디지털 아트, 뮤지컬, 음악 등으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연재 가능한 콘텐츠여야 한다.

불교 크리에이터는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종중과 이해를 갖춘자로서 창작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함과 동시에 불교콘텐츠 제작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3월 20일~4월 7일이다.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hy@buddhism.or.kr)로 제출하면 된다. 5명 선발 계획이며, 선정된 크리에이터는 200만 원의 창작지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5월 위촉식 후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본인의 SNS에 월 1회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 해야하며 전반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다.

포교원은 “뉴미디어 상에 불교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자비암, 위령재 및 대불점안 법회

30년 동안 이어온 불사 회향
지장 · 관음 대불 및 3층 석탑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자비암은 3월 19일 경내 일원에서 '제20회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지장 · 관음 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자비암(주지 자관)이 지장 · 관음대불 점안 법회를 통해 30년 동안 이어온 불사를 회향했다.

자비암은 3월 19일 경내 일원에서 '제20회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지장 · 관음 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자비암은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으며, 이어 점안식 및 기념법회, 예술단 공연 을 진행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축사 △장학금 전달 및 구청장 축사 △주지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주지 자관 스님, 범어사 前 주지 경선 스님, 태고종 승정 원목 스님, 마산 석봉암 회주 월봉 스님, 태고종 부산종무원장 마나 스님, 화엄 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장준용 동래구청장, 자비암 문화예술단과 신도단체 지장회 및 관음회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자비암은 불사를 회향하며 재단법인 동래구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불사에 동참한 재가자 800명의 이름을 새긴 공덕비를 제막하고 감사함을 전했다.

자관 스님은 이번 지장 · 관음 대불과 함께 삼층석탑과 해수관음대불도 함께 불사했다. 이번 불사는 자관 스님이 자비암 불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세운 원력이다. 지장보살은 높이 7m이며 관음보살은 높이 9m, 해수관음대불은 높이 9m, 삼층석탑은 높이 7m이다. 모두 익산 황등 석재로 조성했다.

주지 자관 스님은 "30여 년 전 금정산 계명암에서 기도 후 중생포교 원력을 세우고 이곳 마안산 자비암을 세웠다"며 "그동안 4차례에 이르는 대웅전 중창불사와 약사여래를 모신 후 15년 만에 관음 · 지장대불과 해수관음대불, 3층 석탑 불사까지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사는 백년이 아닌 천년고찰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자비암이라는 이름처럼 중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여의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자비암은 30년 전 범어사 계명암에서 기도를 이어온 자관 스님이 세운 사찰이다. 당시 13평 슬레이트 건물을 매입해 불사를 시작했으며 지역민을 위한 사찰로 성장해왔다. 자비암은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해 마스크와 양말, 자비의 쌀 등을 후원하며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또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다채로운 문화공연 및 점심공양을 대접해왔다. 특히 자비암은 임진왜란 격전지였던 동래읍성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임진왜란 때 동래읍성 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왜군에 의해 살해됐고 당시 사망자는 3500여 명이 넘는다. 자비암은 임진왜란 당시 숨진 호국영령을 위해 20년 동안 매해 위령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통해 자비암은 부산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이번 해 20회를 맞았다. 이에 대해 주지 자관 스님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동래읍성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안타깝다"며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천도를 지내야 지금 후손들이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다. 자비암이 이곳에 위치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앞으로도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아시아, 캄보디아 어린이 자매결연

이봉희 기업가, 1000만 원 후원



국제구호 NGO (사)위드아시아가 3월 22일 부산 문수사 대웅전에서 '위드아시아 Dream나래센터 취약계층 어린이 자매결연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제구호 NGO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3월 22일 부산 문수사 대웅전에서 '위드아시아 Dream나래센터 취약계층 어린이 자매결연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을 위해서 문수사와 인연이 있는 불자 기업인 이봉희 회장이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위드아시아 Dream나래센터 내 취약계층 어린이 10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자금을 지원한다. 자매결연을 맺은 어린이들은 조손 및 한 부모 가정이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이 회장은 부산 문수사 신도이며 서울에서 ㈜에프씨모기지와 자동차 플랫폼 회사 ㈜카방을 운영 중이다. 생전 불심이 깊었던 모친 故 김 고불심 불자의 영향으로 (사)위드아시아 및 문수사와 인연을 맺게 됐다. 고불심 보살은 문수사 지장회 회장 소임을 맡아 평생 포교와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불자이다. 이 회장은 모친의 불심을 받들어 기부와 봉사 등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를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불사이고 불공이며 보시이다. 부처님께서는 세계일화를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강조하셨다. 둘이 아닌 하나로 여기고 나눔을 실천할 때 모든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어머님의 불심을 따라 크고 훌륭한 마음을 내어 준 이봉희 회장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봉희 회장은 "어머님의 불심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도 뿌리가 내려 자리 잡은 것 같다. 어머님은 살아생전 불자로서 나눔에 대한 강한 원력이 있었고 저도 그 생각을 잇고자 했다"며 "위드아시아 이사로 활동하며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열악한 환경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불자로서 온 세상이 부처님의 정토가 되기까지 앞으로도 힘을 다해 봉사와 기부를 실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위드아시아 Dream나래센터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뿌레이벵주 뿌레이끄랑마을에 개원한 복지기구이다. 2013년 9월 2일 개원해 현재 어린이 공부방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실, 공동우물 등을 건립해 보건지원사업 및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드아시아 Dream나래센터는 '한 마을 공동화장실 짓기 캠페인'을 벌여 현재 화장실 41개를 건립해 환경 개선에 앞장섰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제공을 위해 마을 공동우물사업(1우물당 10~15가구 사용)을 벌여 현재 16개의 공동우물을 설치했다.

(사)위드아시아는 미얀마에서 '위드아시아 청소년도서관'을 개관해 도서, 영상물 지원, 학용품 등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2002년 10월부터 북한 어린이를 위해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왔으며, 국제구호사업으로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학교 및 공부방을 건립하고 절대 빈곤 지역 마을에 우물설치와 지붕 개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결연사업 등 다양한 국제구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싱잉볼치유의소리,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홍법사(주지 심산) 산하 (사)싱잉볼치유의소리가 2023년 상반기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반기 명상프로그램은 △붓다볼 다라니108명상 △싱잉볼마음보기 명상 △싱잉볼 북테라피이다.

'붓다볼 다라니108명상'은 4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15주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진행된다.

'싱잉볼마음보기 명상'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 총 8주이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두 시간씩 진행된다. 싱잉볼을 활용해 호흡명상과 걷기 명상을 진행하고 처음 싱잉볼을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초 실습도 이어질 예정이다.

'싱잉볼 북테라피'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 총 8주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 동안 이어진다.

강사는 (사)싱잉볼치유의소리 자격이수자들이 진행한다. 참가비는 싱잉볼치유의소리 자격과정 이수자는 20%, 본원 타 과정 이수자(다라니 명상 제외)는 10% 할인 받을 수 있다.

김경숙 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는 "붓다볼 소리는 치유의 공간에서 마음이 머물도록 돕는다"며 "이번 강좌는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주사 화엄행자, 스리랑카 자립지원금 전달

3월 22일, 설법전서…4000만 원



창원 성주사 화엄행자(상임지도법사 법안)가 3월 22일 경내 설법전에서 스리랑카 자립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화엄행자'는 주지 법안 스님이 2012년 2월 12일 결성한 재가자 중심 천일수행 공동체이며, 세 번째 천일수행 회향을 150여 일 앞두고 있다. 화엄행자는 전달식에서 스리랑카 어린이 자립지원센터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복지단체인 (재)한가람문화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홍영식 한가람문화재단 청소년 국장 및 관계자를 비롯해 신도회 임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따뜻한 마음과 자비의 손길로 모아진 정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국제교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동남아 빈곤국가인 스리랑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화엄행자 회원들이 매일 기도하며 모은 기도비와 600여 SNS 회원들이 모금한 모금액, 소원등 달기 및 공양금 등 십시일반 모은 동참금으로 마련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재동자문화전승단, 행렬등 만들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지도법사 눌은)이 3월 18일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불기 2567 부산연등축제 행렬등 만들기를 개최했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불교문화전승과 포교를 위해 활동하는 어린이들의 모임으로, 이날 선재동자문화전승단과 학부모들은 행렬등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렬등은 팔각등 전통등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50여 개를 만들었다. 이번에 제작한 행렬등은 부처님오신날 관련 행사에서 호기놀이 및 제등행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렬등 제작에는 지도법사 눌은 스님을 비롯해 김진희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운영회장, 장남주 前 대불련 부산지부 회장, 김태윤 인제대 대불련 지회장, 범어사 포교사단, 선재문화 전승단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기 불교의례 재가 전교사 과정 모집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은 어산 법맥을 이어온 교수사를 중심으로 불전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고 나아가 전통의식 · 의례를 온전히 전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불교조계종의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일상 상용의례와 전통의례 및 종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우리말불교의식은 물론 다양한 불전의식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반 재가불자들이 불교의례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강의를 통하여 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남녀 불문 누구든지 교육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불교의례에 관심 있는 일반인 (재가자)
모집기간 2023년 4월 10일(월)까지
교육내용 일상의례를 중심으로 교육
☞도량석 · 종송 · 각단예불 · 송주,권공
☞우리말의식(예불의례, 반야심경 등 종단에서 공포하는 모든 우리말 불교의식 의례)
☞의식이론(불교의식개론, 불교의식의 구조)
☞사물연주(목탁 · 요령)
강 의 일 주1회 (월요일) / 오후 7시~9시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강)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신청방법 입학원서 접수 및 면접 (우편 및 전화접수 가능) ※인터넷접수 www.jsw.or.kr
면접 및 등록 2023년 4월 10일(월) 오후 6시 (면접장소 :구룡사 전승원 회의실)
구비서류 ①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②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일시 2023년 4월 10일(월) 오후 6시부터 면접 및 등록 후 입학식
교육장소 구룡사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5길 31-11)
문 의 교무스님 010-2329-1842 구룡사 종무소 02-575-7766

구룡사 아산 정우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원장 성견 학장 혜천 정오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5주년 기념 제18회 추모 다례재 및 경로위안행사

귀의 삼보하옵고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에서는 불향인 전남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5주년을 맞아 제18회 다례재 및 경로위안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화순문화원에서 봉행되는 다례재는 진각국사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화순군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4월 18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화순문화원
■ 주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 후원 : 화순군 Hwasun-gun 화순군의회 Hwasun-gun Council
■ 협찬 : 화순 초등학교 제37회 동문회, 화순읍 유천리 벽오동 보리밥. 화순군 동면 예작 식당 화순 문화원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1길 16 혜심사 H·P 010-2971-4646

약사정사 생전예수재, 마가 스님 초청법회

생전예수재 동참자와 함께 마련한 쌀 100포 진주시 복지재단에 전달
마가스님, 불자들에게 실천행 당부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 약사정사는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를 맞아 초청 법회를 열었다.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는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를 맞아 초청 법회를 열었다. 약사정사는 3월 19일 2층 대법당에서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 초청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진여 스님은 생전예수재 동참 불자들과 함께 마련한 백미 10kg 100포를 진주시복지재단 박성장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진주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는 약사정사 진여스님, (사)자비명상이사장 고성 옥천사 마가스님, 무상사 근해스님, 길상사 지원스님, 보명암 원정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경상국립대 연화회 지도법사 김용진교수, 한국선비문화원 최구식원장, 진주시복지재단 박성장 사무총장, 도리원 천영란 원장, 법화회 정한숙신도회장, 약사정사신도회, 연화회 하동현회장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진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예수재를 봉행하면서 예수재의 진정한 의미와 해법을 찾고자 마가 스님께 부탁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 하는 법문을 듣고자 초청했다"며 "부처님 말씀에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큰스님을 모시고 큰 법회를 하게 된 것은 큰 복을 지어 놓은 것 갔다"고 말했다.

국립경상대 연화회지도법사 김용진 교수는 축사에서 "약사정사 진여 스님은 지역불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연화회 불교학생회 창립에 밑받침이 되어 주신 분"이라며 "새벽마다 법화경 독송 수행을 하시는 중에도 매년 자비나눔을 실천하시는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옥천사 마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음력과 양력의 차이에서 3년에 한번 돌아오는 보너스 같은 윤달은 그동안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주는 시간"이라며 "내 인생에 꽃이 필 수 있도록 마음을 내고 꽃공양을 올려서 기분도 좋고 아름다운 염원을 담아서 실천행을 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내안의 팔만사천가지의 분별심은 수행실천과 타인과의 관계 설정으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의 작은 아바타"라며 "절에서 삼천배보다 더 큰 의미가 가족과 자식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침이다. 나와 함께 있는 그 분을 부처 대우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세 곳의 절을 가야하는 이유로 간절, 친절, 미고사(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절을 꼽고 "수행과 바람도 간절하게 부처님 대하듯 간절하게 해야 한다, 내면의 자성과 부처님이 개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고사 마지막 절은 가정 집안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한숙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수재를 맞이하여 자비 나눔과 마가스님의 좋은 법문으로 감사함과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고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온 보문행 불자는 "인터넷으로 새벽기도에 동참해왔는데 스님의 모습이 마치 친정엄마 같고 관세음보살님 같아 편안한 마음이 생겼다"며 "생전에 처음으로 내려놓고 자신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변화가 있고 자존감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동현 경상국립대 연화회회장은 국립 경상대학교 불교동아리 탄생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진여 스님과 도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사회복지요양원 도리원 천영란 원장은 포교활성화 기금 100만 원을 경상국립대학 불교학생회 연화회 하동현 회장에게 전달했다.

정법사 어린이문수회 개강 및 파라미타 발대식

초등학생 115명 새롭게 입회
매주 토요일 다양한 체험활동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3월 18일 2층 만불전에서 어린이문수회법회 개강식을 개최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3월 18일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어린이문수회 법회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파라미타 발대식과 함께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중단됐던 어린이문수회법회에는 115명의 초등학생이 입회했다. 1학년 반야반, 2학년 문수반, 3학년 보현반, 4·5·6학년 지혜반으로 구성된 어린이문수회는 지도법사 초일 스님과 선생님들의 지도로 매주 토요일 10시에 정법사 3층 문수원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어린이문수회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정기법회, 운동법회, 참회법회, 생일법회, 연꽃문화제, 성지순례, 소풍법회, 여름불교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문수회 어린이들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에도 가입해 문화재와 그 주변 정화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탐구 활동, 문화재를 가꾸고 가치를 새롭게 하는 즐거운 창의활동, 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창의적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게 된다.

정법사 대자유치원 박선영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강법회는 정법사 문수회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시청에 이어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스님 인사, 파라미타회장인사, 정법사임원진 소개, 법사스님 및 교사소개, 사홍서원, 반별 오리엔테이션,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정법사 송정 스님, 초일 스님,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 김선정 신도회장 및 임원진, 박선영 대자유치원원장 및 어린이회 지도교사,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광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배워야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야 한다. 늘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에게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말고 동물원에 자주 데려가 달라.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이 법회에 와서까지 공부를 강요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라미타는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과 문화재청 민간 합동협력운동으로 생성되어 사찰의 문화재보존과 관리, 봉사 등으로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문화재청에서 봉사 점수 등 관리도 하니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며 "파라미타 가입으로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보시(나눔), 지계(계율, 준법), 인욕(인내)을 잘 지키고 총재스님, 법사스님, 지도교사들의 인도에 잘 따라서 훌륭하게 자라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2006년 창립해 2008년 창원시와 도교육청으로부터 공인된 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단체로 등록(봉사시간 인정)되어 현재 사찰 및 학교분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사 前 조실 명선 스님 49재 봉행



화엄사는 3월 22일 각황전에서 호남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한 前 화엄사 조실 금성당 명선 대종사의 49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 회주 종열 스님, 원로의원 암도 스님, 원행 스님, 성원수좌회 대표 일오 스님, 전국 비구니 원로의장 수현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교구문도 주지스님들이 참여해 명선 대종사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다.

49재는 생전육성, 헌화 및 헌다, 문도대표 인사등이 진행됐다.

이날 문도를 대표한 진만 스님은 "큰스님의 가르침과 유훈을 가슴속 깊이 새겨 앞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덕문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큰스님께서 늘 생전에 말씀하셨던 화합과 정진을 실천하는 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선 스님은 1952년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보관사, 범어사, 통도사, 도리사, 해인사 백련암, 상운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0년부터 제3~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화엄사 주지, 2012년 원로회의 부의장과 여수 흥국사 주지,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2일 영수 흥국사에서 법랍 70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49재에 이어 화엄사 경내 삼소교 개통식을 진행했다. 지리산과 화엄사를 연결하는 교량인 삼소교는 탐방객들의 편의와 사찰과 국립공원을 이어주는 전통식 다리로, 2021년 4월 설계에 착수해 지난 3월 준공됐으며 이날 개통식을 열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선운사 영호 대종사 75주기 추모재

부도전서 역대 조사 다례재도



선운사(주지 경우)는 3월 20일 근대 한국불교의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영호당 정호 대종사 75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부도전에서 각각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그동안 정호당 영호 대종사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의 발전과 선운사의 발전을 위해 스님의 큰 뜻을 이어 받아 수행과 전법교화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부도전에서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가 이어졌다. 효담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다례재에서 참석대중은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업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영호 스님은 율(律)·화엄(華嚴)종주인 백파 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과 교(敎)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대석학이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 교장과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 동안 조선불교교정(현 종정)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 왔으며, 불교의 친일화에 반대해 서울 개운사에 대원불교강원(大圓佛敎講院)을 설립 청담 스님 운허스님 등과 문인 서정주, 신석정, 조지훈, 김달진, 김어수 등을 양성하고, 저서로 〈석전시초(石顚詩鈔)〉 〈석림수필(石林隨筆)〉 〈석림초(石林抄)〉 등을 남겼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대표로 참여하고 대한각(유리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 쌍봉사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이 3월 18일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에는 쌍봉사 섬김자원봉사단 15명의 봉사자가 동참해 무생채, 냉이 국, 멸치 꽈리고추 조림으로 구성된 밑반찬 꾸러미를 만들었다.

진안지역의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가구, 독거어르신,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51가구에 제공된 밑반찬은 쌍봉사 봉사단의 추천,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의 추천을 받은 가정에 직접 배달됐다.

쌍봉사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며 완성된 밑반찬은 봉사자들이 직접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핀다.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의 다양한 봉사활동은 진안 지역의 어르신들이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동제 전북지사

평택 보국사 법현 스님 진산식 봉행



전통사찰 평택 보국사가 새 대웅전을 건립하고 '저잣거리 수행법사' 법현 스님을 주지로 맞았다.

보국사는 3월 18일 경내에서 '부처님 궐' 낙성식과 주지 법현 스님 진산식을 봉행하고 포교 전법도량으로 발전을 다짐했다.

진산식은 중국 선종 고승 백장 스님이 제정한 '백장청규' 정신에 따라 진행됐다. 법현 스님이 산문 각 방소에 절을 올리는 의식을 올리며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어 삼성각, 부처님궐, 주방인 향적당, 욕실인 향수해, 무생불전, 해우소인 동사에 각각 인사를 올렸다.

법현 스님은 "앞서간 여러 조사스님들께서 수행과 전법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덕성을 깊이 새겨 그분들이 만든 세상에 나가고자 한다"며 "다문화 포교를 진행, 지역발전을 넘어 세계일화에 앞장서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지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군산 성불사 불보살 개금불사 회향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아미타 삼존불등 법당에 봉안된 불보살상의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성불사는 3월 23일 대웅전에서 아미타 삼존불과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포대화상의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전북영산작법 보존회장 영산스님을 비롯한 보존회 스님들의 신중작법, 상단권공, 천수바라, 작법무 등 불교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금불사 회향법회는 종현스님의 증명으로 모든 악을 떨쳐내는 팥과 청정수를 뿌리고 점필과 불보살상에 광명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점안의식이 마무리 됐다.

성불사 주지 종명스님은 "그동안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해주신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며 "정성을 다해 기도와 염불등 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지혜를 얻고 공덕을 쌓아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쌍봉사 공양미 나눔 행사



탑사(주지 진성)와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강진희)는 3월 23일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2000kg(10kg 200포대)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전달한 자비의 쌀은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진안군 11개 읍·면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불자들이 정성으로 올린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신도님들의 인연공덕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했다"고 말했다.

쌍봉사 보경 스님도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 바란다"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부처님의 가피로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 신흥사, 인경 스님 취임기념 법회



울산 호국사찰 신흥사(주지 인경)가 3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신임 주지 인경 스님의 취임을 기념하며 대강백 요산 지안 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요산 지안 대종사와 신임 주지 인경 스님, 염불암 성륜 스님, 신도회 임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법사등단, 청법가, 청법계, 입정, 법사스님 소개, 법문, 주지스님 인사, 축가,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주지 인경 스님은 "천년고찰이며 호국도량인 신흥사가 앞으로 불자들의 의지처가 되고 안락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자 한다"며 "오늘 은사이신 지안 큰 스님을 모시고 많은 불자들과 법회를 진행해 마음이 더 없이 기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日, 호류지 금당벽화 소실 전으로 복원

아스카 시대 명작으로 손꼽혀
1949년 화재 소실된 것 복제
안료 변색 막고 내구성 높여
화재 전후 비교 가능케 전시

박영빈 객원기자


실제 크기의 도판으로 복원된 호류지 금당벽화.
사진출처=나라신문

70년여 전의 화재로 소실된 일본의 호류지(法隆寺) 금당벽화가 소실 직전의 색채와 상황 등을 복원한 복제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3월 19일 일본의 '나라신문'과 'NHK 간사이' 등은 다시 돌아온 호류지 벽화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3월 18일 일본 나라현 카시하라시에 소재한 현립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박물관은 새롭게 복원된 호류지 금당벽화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호류지 금당벽화 제1호 벽에 그려진 석가정토도. 중앙에는 선명한 붉은 가사를 수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보살과 나한이 협시로 서있는 구도로 아스카 시대의 명작으로 꼽히던 벽화다.

실물과 동일한 크기인 높이 약 3m, 너비 2m 50cm 가량으로 제작된 이 벽화는 지난 1949년 화재로 손실된 원복의 복원 복제품이다. 그림은 도판에 그려져 소성한 것으로 안료의 변색을 막고 그림의 내구성을 높였다. 복원을 맡은 회사는 일본내 고분벽화의 복원과 복제로 유명한 오사카의 오츠카 오미 도자회사로 사측은 이번 원형 복원 복제를 위해 회사의 모든 기술력은 물론 일본화와 불화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손을 거쳤다고 밝혔다.

나라현 측은 "재작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외 박물관과의 국제교류 사업의 촉진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화재 1939년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을 비롯해 소실된 벽화에 잔존한 안료의 분석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90년전의 색채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작년 3월 완성된 이 벽화는 같은 해 가을 중국 칭화대에서 열린 중일교류 특별전에 처음 선보였고, 18일부터는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박물관에 상시공개된다. 복원된 벽화의 맡은 편엔 화재로 손상된 현 상태의 벽화를 그대로 복제한 도판이 전시하여 화재의 전후를 한 눈에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의 아오야기 마사노리 소장은 "이정도로 훌륭하게 색채를 복원할 수 있었기에 화재의 전후로 벽화 전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벽화를 전체를 복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泰, 메콩강 수위 내려가며 모습 드러낸 탑

메콩강 수위 낮아지며 나타나
부처님 발가락 뼈 봉안된 탑


강 수위가 낮아져 모습을 드러낸 진신지골사리탑에 불자들이 금색 천을 두르고 있다.
사진출처=더 네이션 타일랜드

라오스와 태국 북동부 사이의 메콩강에서 7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탑이 나타났다.

지난 3월 16일 태국 매체 '더 타이거'는 태국 메콩강 수위가 내려가며 모습을 드러낸 고대 탑 소식을 전했다. 태국 이산 지방의 최북단 농카이주에 성스러운 건축물을 보기위해 불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프라 댓 카이 또는 프라 댓 클랑 남(물에 잠긴 탑)으로 알려진 진신사리탑 프라 댓 라 농은 700여 년 전 메콩강 둑에 지어졌으나 1847년 메콩강으로 추락해 175년 간 수면 아래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잠긴 탑은 강 수위가 낮아지면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가뭄으로 메콩강 수위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잠겨있던 탑이 모습을 드러내 수많은 불자들이 탑을 보기위해 농카이 강둑에 방문했다. 사원의 역사와 유물 정보를 기록하는 전통 불교 연대기 우랑카닷(Urangkhathat)에 따르면 프라 댓 라 농 탑에는 부처님의 발가락뼈 9구를 봉안한 진신지골사리(眞身指骨舍利) 탑이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사각형 탑의 너비는 17.2m, 높이는 28.5m인 것으로 밝혀졌다. 탑은 추락당시 세 조각으로 부서졌으며 물의 흐름에 의해 계속 침식되고 있다. 탑의 구조 비교 분석 결과 1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지사리(佛指舍利)탑 친견을 위해 순례를 온 불자들은 보트 위에서 탑을 만지기도, 또 금색 천을 씌우기도 했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 낮은 수위를 유지하는 메콩강의 일부 구간은 수심이 1미터도 채 되지 않아 관계자들은 보트 운행 및 이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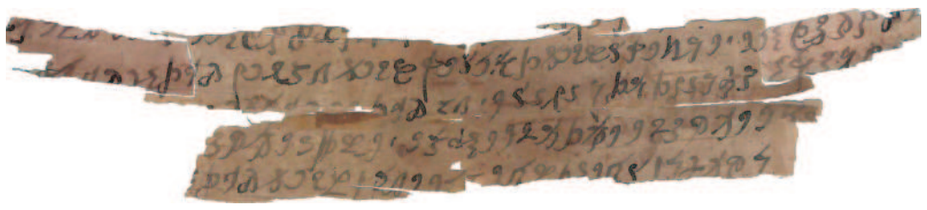
현지 보트 항해사 '라핀 부센'은 "최근 며칠간 진신지골사리탑을 보기 위해 순례를 온 불자들이 많아졌으며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면서 "부처님 가피로 도움을 받은 우리가 순례자들의 친견을 돕겠다. 더욱 많은 보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3년 전 큰 가뭄으로 태국 중부에 있는 불교 사원의 잔해 드러나기도 했다. 롭부리주의 왓 농 부아 야이라는 절은 댐 건설로 인해 20년간 수면 아래 잠들어 있었다. 최악의 가뭄으로 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몰 당시 모습을 온전히 간직한 석불상과 사찰이 모습이 드러나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켄체 재단, 파키스탄에 간다리 불교 문헌 기증

기원전 1세기 경 제작 추정
"문헌 디지털화 · 출판 추진"


국제불교연구학회지 41(2018)에 게재된 반주삼매경 일부.
사진출처=켄체 재단

부탄의 켄체 재단이 파키스탄에 고대 간다리(Gandhari) 불교 문헌을 기증해 화제다. 지난 3월 15일 부탄의 불교지도자이자 영화제작가로도 유명한 켄체 노르부 린포체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켄체 재단'이 2,000년 된 불교 문헌과 카로슈티 문자로 쓰인 고대 필사본을 파키스탄 이슬라바마드 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된 불교 문헌은 50~60개의 자작나무 껍질에 산스크리트어의 파생어인 간다리 문자로 필사한 두루마리 형태의 불교경전이며 발견된 고대 불교 문헌 중 가장 큰 크기로 알려져 있다. 고문서 분석과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켄체 재단 관계자는 "파키스탄에 기증한 고대 문헌들은 파키스탄 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던 간다라의 풍부한 불교문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라면서 "팔리어로 쓴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8장을 간다리어로 필사한 문헌이 존재하며 당시 스님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율장도 있다. 이와 유사한 고대 필사본들을 불교 사해문서(死海文書)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슬라마바드 박물관에 기증하는 간다리 문헌 컬렉션은 사실 1990년대 초부터 대중에게 알려진 여러 소장품 중 하나"라며 "이번 기증은 파키스탄 공공기관에 영구 거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기증 의의를 전했다. 켄체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간다리 문헌은 모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것이며 일부 소장품은 영국 도서관등 여러 국가 공공 기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 기증은 켄체 재단의 지원을 받은 파키스탄 고고학 박물관부(DOAM)와 시드니 대학 간의 협약 및 이슬라마바드의 호주 고등 위원회와 캔버라의 파키스탄 고등 위원회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이 협약은 지난해 12월 20일 이슬라마바드 박물관에서 파키스탄 국가유산문화부 장관인 파레나 마즈하르가 참석한 가운데 압둘 아지엠 박사가 공식화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골동품 거래의 일환으로 반출되어 훼손되는 고대 필사본의 유통 방식을 뒤집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문헌의 보존과 연구, 파키스탄의 풍부한 불교 유산의 문서화를 촉진하기 위해 파키스탄 학자들과 협력하고 파키스탄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협약에 따라 문헌의 보존, 분석, 디지털화, 출판은 국제학자인 간다리 원고 프로젝트(GMP)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시드니 대학 측은 "이번 불교 문헌의 기증은 남아시아의 불교 사상 발전, 중국으로의 불교 전승, 고대 간다라의 역사,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의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등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켄체 재단은 2001년 켄체 노르부 린포체가 포교 및 불교 수행의 모든 전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문헌 · 경전 보존 및 번역 프로젝트, 아시아에 산재한 승가대학의 지원, 장학금 지원, 불교 연구 개발, 불교 교사 양성 및 개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불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대만 불교연합회, 교황과 만남 가져

종교 간의 대화와 서로 다른 문화 간 만남의 장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초상화를 선물하는 대만 불교 대표단.
사진출처=중앙통신사

'인간불교(人間佛教)'를 모토로 하는 대만 불광산사의 '중화인간불교연합회'가 지난 16일 로마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졌다. 대만의 '중앙통신사'와 바티칸의 '바티칸 뉴스' 등의 외신들은 대만불교를 대표하여 수백명의 불자들이 종교간의 대화와 서로의 문화 교류를 위한 순례로써 바티칸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화인간불교연합회와의 접견자리에서 "대만 불자들의 바티칸 방문은 불교와 기독교 각각의 신자가 스스로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자라난 자란 우애와 협력의 정신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표단을 환영했다. 또 교황은 '인간불교'의 추진자로, 얼마 전 입적한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를 애도하며 성운대사가 이어온 여러 종교대화에 공헌을 추모하면서, "동서양의 전통종교가 가지는 지혜와 인간성을 가지고 영성의 교육에 새로운 자극을 가져와 세계에 보편적인 형제애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표단을 이끈 불광산사의 신바오 스님은 우호의 증표로 특별히 대만에서 제작된 두 점의 그림을 교황에게 선물했다. 이중 하나는 불광대학 부설 유치원의 원생들이 그린 교황의 초상화로, 신바오 스님은 "이 두 그림은 교황이 가진 세계에 대한 큰 사랑과 대만을 향한 축복을 상징한다. 대만과 바티칸 간의 종교 교류를 통해 동양과 서양종교 간의 관용과 화합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대표단의 선물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만남의 문화'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를 열어 그 안에 우정과 형제애를 찾아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또한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만남의 문화는 상호간의 계단을 쌓아올려 타인이 종교적 가치와 원칙에 대해 창문을 열 수 있다. 인류와 지구가 너무나 빠르게 계속 변화하는 오늘날이야 말로 만남의 오아시스가 더 필요하다"며 종교간의 대화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고 교황은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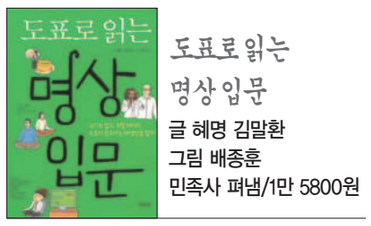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2~3/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도법스님의신심명강의:중도연기의눈으로본깨달음의노래	도법	불광출판사
3	은정희교수의대승기신론강의	은정희 지음	예문서원
4	궁금해요불교:매주제마다문제풀이를통해	도업 지음	운주사
5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6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세상을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7	붓다의근본가르침(불교대학강의노트1)	이철헌 엮음	아름원
8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증보판*양장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9	역주수능엄경	일귀/무비감수	샘이깊은물
10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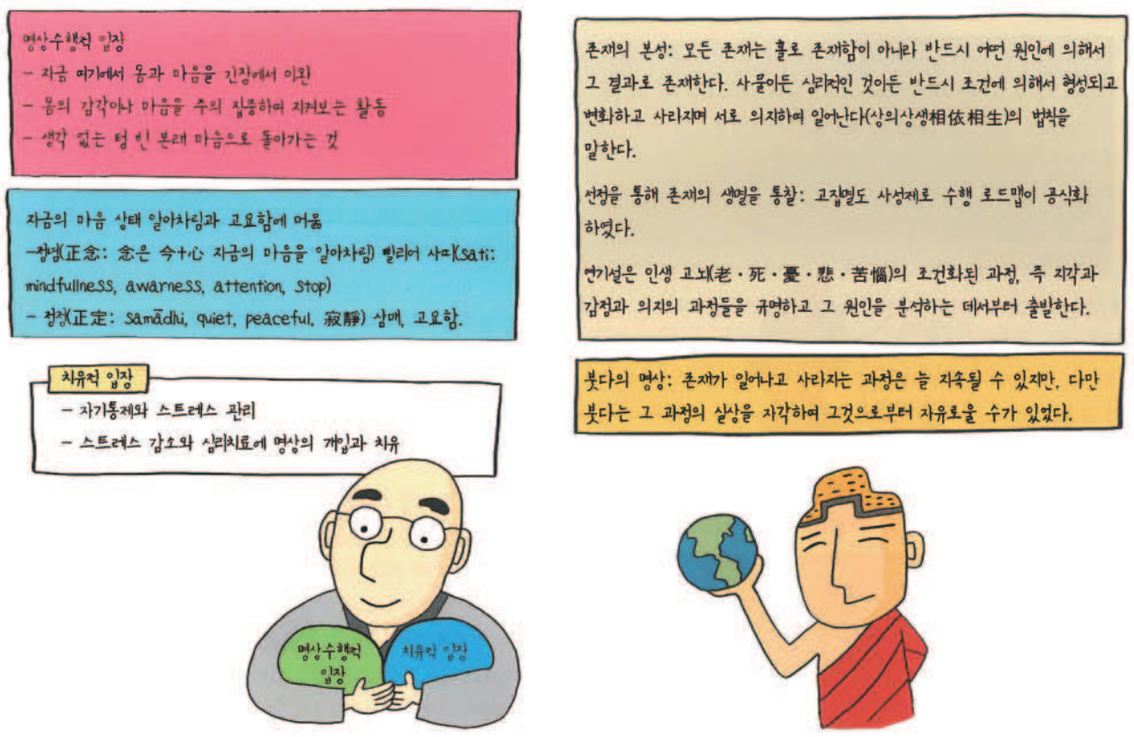
책세상

뇌 과학 통해 증명된 명상 중요성 알까?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글 혜명 김말환
그림 배종훈
민족사 펴냄/1만 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명상은 이제 선택 아닌 행복과 성공의 필수요건
어렵게만 느껴지던 명상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
명상의 기초부터 열가지 방법 사례까지 총 망라

바야흐로 명상이 트렌드가 된지 오래이다. 평소 명상 콘텐츠와 명상 앱으로 멘탈을 관리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물결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불교를 간결히 서술하고, 도표로 정리해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로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이 출간됐다.

오랜 옛날부터 동양의 수행 전통인 명상이 요즘 특히 서양의 지식인 사회에서 더욱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첨단과학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서양의 지식인들이 명상에 매료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21세기는 기술 발달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가 쓰나미처럼 넘쳐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첨단문명 사회일수록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서양의 지식인들이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마음 치유에서 더 나아가 요즘은 명상이 성공 습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명상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행복 지수도 높여주고 동시에 성공 습관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명상을 하면 불규칙한 베타파(β)에서 균형이 잡힌 빠른 알파파(α)로 변화되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엔돌핀이 나와 행복해진다. 명상을 통해 우뇌가 발달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이 강화된다는 것도 뇌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기에 더욱 많은 사람이 명상에 매료되는 것이다. 이 책이 이끄는 대로 명상에 입문하면 자기의 참 모습을 만나게 되고, 인생서 가장 중요한 것, 행복과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책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있다. "쉽게 접근하라" "주의를 기울여 의도적으로 호흡하라" "습관적 행동을 멈추고 알아차림 하라" 등 명상을 시작하는 이에게 당부 말씀부터 초기 위빠사나 통찰 명상에서, 대승 및 중국 선 명상, 한국의 성철 스님과, 숭산 스님의 화두 선 실천 명상, 명상의 10가지 방법 사례에 이르기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저자의 간절하고 진솔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신한대 이태정 명예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인간이 겪는 내면의 심리적 고통을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해 그 핵심 감정을 직면해 가도록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에 겪는 마음 상태를 주의 집중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객관화해 지켜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명상 방법들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처럼 이태정 교수의 추천사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책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기초부터 명상 지도자들이 필요한 명상 지도 방법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 간단명료한 요약 어법으로 풀어나갔다.

이 책의 저자 김말환 법사(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주임강사)는 수십 년 간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장병들을 지도, 〈선수행에 의한 심리상담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부적응 장병들을 위한 선도 및 치유 활동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전역 후 10여 년 동안에는 명상 지도 전문 강사를 배출한 김말환 법사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코로나 펜데믹이 덮친 지난 3년 동안 고립된 일상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빠진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바로 직면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누구나 명상에 입문할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출간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저자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명상을 지도했다. 이에 나이와 성별을 떠나 세상 사람의 삶에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특히 명상을 지도하는 강사를 배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의 정수를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했다. 저자는 "명상을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서 더 나아가 현재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명상의 본래 목적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애를 썼지요."라고 설명한다.

명상을 시작하는 초심자를 위한 당부부터 시작해 붓다가 깨달은 명상의 기본 원리와 대승불교의 명상 수행, 명상의 10가지 방법 사례 등 총 7장으로 나눠 구성된 이 책은 편편마다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명상의 정수를 담아 놓았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세계에 깃들게 되고,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불교명상 전문가들의 추천 평도 이어졌다. 신진욱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는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빌게이츠, 마이클 조던, 오프라 윈프리는 왜 명상에 열광하는 걸까, 과학의 옷을 입은 명상이 서양에서 꽃피고 있는 시대, 이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 해 보길 강력히 추천한다.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추켜 세웠다.

명상지도자연합회 회장 경오 정읍 미타사 주지도 "저는 아직도 젊은 시절 선방에서 화두 참구를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인연이 닿아 도심에서 불자를 만나고, 특히 다문화 가족들을 만나면서, 일상의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명상 수행을 강조한 바, 이 책은 모두에게 치유적 삶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피력했다. 정연희 명상지도사도 "이 책은 인간이 겪는 내면의 심리적 고통을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해 그 핵심 감정을 직면해 가도록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그 순간에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의집중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객관화하여 지켜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명상 방법들을 잘 제시해 준다"고 소개한다.

▲저자 김말환은?

조계종 원로의원 불심도문 큰스님을 은사로 불교입문, 무심보광 前 동국대 총장 스님을 지도교수로 동국대 선학과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선수행에 의한 심리상담법 연구〉이다. 군 법사로 활동하면서 군 생활 부적응 장병들을 위한 선도 및 치유 활동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역 후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상담전공 객원교수, 서울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동국대 미래융합 교육원 자격과정 '명상전문 지도강사 과정' 주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선수행과 심리치료〉, 명상지도전문강사 교재 〈명상 수행자를 위한 내면의 통찰과 자기성장〉, 논문으로는 〈선문답을 통한 심리 고찰〉〈한국불교학〉 제29집 한국불교학회 〈十牛圖의 수행과 自己實現〉 등이 있다. 현재는 서울 관악산 화승사 선심리상담 및 명상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림 배종훈은?

2003년 '월간 불광' 연재를 시작으로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등의 월간 불교 잡지와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등의 교계 언론사에 삽화와 카툰을 지금까지 연재하고 있다. 또 여행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출간한 책으로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연꽃 향기로 오신 묘엄 스님〉〈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유럽을 그리다〉〈행복한 명상카툰〉〈내 마음의 죽비소리〉〈자네 밥은 먹었는가〉〈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등이 있다. 2010년 불일미술관, 2014년 스페이스 선+, 2014년 불교박람회&붓다아트 페스티벌 기획전, 2016년 스페이스 선+ 갤러리 등의 선카툰 전시회를 가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9월 6일,수)	2일차(9월 7일, 목)	3일차(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법회 사찰 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1



▶한줄요약
암자의 화재 후 발견된 두 구의 시체는 금어스님과 공양주이며, 그날 암자를 떠난 이는 금어스님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난다.

두 시체 정체는 금어스님과 공양주…

뉴델리에서 며칠 ①

가겟집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 사람들 요상하게 생겨서 뭐 하긴 한대…. 나이가 수월찮니 됐지 아마.

-얼마나요?

사내가 다시 물었다.

-우리 나이로 한 육십 한둘이 되었나?

가겟집 여자가 대답했다.

육십 한둘? 뜻밖이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젊어 보였나? 조실은 이지만 금어를 떠올리며 가겟집 여자를 가림막 틈새로 바라보았다.

-맞아유. 그렇게 되었시오.

-여자가 함께 죽었는데?

-그 한국여자, 공양주야요.

-공양주?

-아, 스님 밥해주는 사람 말이오.

-그래요? 그 여잔 몇 살이나 되었소?

-한 쉰 됐나? 소문에는 이곳에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가 공양주로 들어왔다던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수첩을 긁적거렸다.

-두 사람이 부부였나요?

수첩에서 눈을 떼며 사내가 물었다.

-부부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얼굴에 머물자 에라 하는 표정이 스쳤다.

-시봉이 하나 있었시우.

-시봉?

-그래유. 제자 말이우.

-그래요?

-그놈이라니까. 그놈이 불을 지르고 도망하는 걸 보았다니까.

주인 남자가 갑자기 발작하듯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맞아유. 막 점심을 먹고 나서는데 그놈이 피가 벌겋게 묻은 손을 바지에다 닦으며 요 앞을 지나가더라고. 이상해서 내가 나가 보니께 암자에 불이 났더라고….

-그럼 시봉이란 자가 사람을 죽이고 불을 낸 뒤에 도망을 갔다 그 말인데?

-맞아유. 맞다니께유.

-그 시봉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곁의 사내가 메모하는 동료의 눈치를 살피다가 물었다.

-이제 스물예닐곱이나 되었나? 한국 사람들 영 나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

주인 남자가 가까스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시봉이라고 하셨는데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인가요?

메모하던 사내가 갑자기 그렇게 물었다. 두 시체가 부부간처럼 생각되었던 모양이었다.

-그건 모르겠고 시봉이 맞다니까. 그 사람들 자식이 아니야. 한 번도 아비 어미라 부르는 걸 보지 못했어. 스님이라고 불렀어. 공양주에게는 보살님이라고 불렀고…. 아들이 아녀.

주인 여자가 손바닥으로 눈을 비비며 말했다.

-시봉 이름이 뭐였나요?

메모지를 흔들며 사내가 물었다.

-이석원이라고 했지 아마. 이석원. 한국말 정말 요상해.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대답이 정확한가 하는 표정을 지으며 가겟집 여자가 남편을 돌아보았다. 조실이 듣기에 주인여자는 이석원을 이서가윙이라고 발음하고 있었다.

-맞어요. 성이 이가라고 하데. 이름은 석원이었고. 자주 물건 사러 들락거렸으니까. 얌전했는디….

남편이 아내의 말이 맞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석원을 이서가윙이라고 발음하고 있었다.

-그럼 스님들이 자주 드나들었겠군요?

다시 메모장을 흔들며 사내가 물었다.

-맞어유. 방금도 왔다 갔는디. 스님들이 자주 드나들었시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대충 그 정도에서 초벌 탐문이 끝났는지 사내 둘이 마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실은 그들을 흘끔거리다가 열린 문을 통해 가겟집을 나왔다.

조실이 가겟집에서 본 사내들을 천추사원에서 다시 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뒷짐을 지고 도량을 쓰는 사미의 비질을 보고 있었는데 어제 가겟집에서 본 사내 둘이 들어섰다. 그들의 앞을 객을 맞아들이는 지객(持客) 스님이 가로막았다. 어제 가겟집에서 돌아왔을 때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왔다 갔다고 일러주던 그 스님이었다. 조실은 모르는 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내 지객스님의 음성이 조실실 밖에서 들려왔다.

-큰스님 뵙자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지객스님이 자신을 찾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물었다.

-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며 형사들이 나왔습니다. 큰스님을 뵙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시거라.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조실은 대답했다. 신도들을 제도하다 보면 큰스님으로서의 체면을 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근기가 약한 신도들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함부로 굴기 일쑤다. 그렇다고 매양 엄숙하게 대하면 그 스님 참 재미없다거나 너무 엄숙해서 싫다며 멀어져 버린다. 그때마다 부처님이 왜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 즉 대기설법을 하셨는지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기야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친다고 해서 알아들을 리 없다. 그저 근기에 맞게 신도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 대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싫다. 만만히 보이지 않기 위해 가식적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러나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부터 든다. 부처님처럼 사람 보기가 무섭게 근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대해야지. 그런데 아직도 미욱한 중생이라 꼭 대해봐야 그런 생각이 드니 사람 보는 눈이 모자란 것이 분명했다. 척 봐서 아는 느낌. 그 느낌이 정답일 터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 공부도 그렇지 않은가. 부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깨달았다. 우주의 이치를 한순간에 깨친 것이다. 별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길래 깨친 것일까?



그렇다. 깨침은 느낌이다. 느낌은 본질이다. 느낌이 직관이라면 나의 직관이 얼마나 무디기에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근기를 모르겠다. 그러니 자연히 가식적으로 대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제도가 헷갈리는 것이다.

문이 열리고 어제 가겟집에서 본 사내 둘이 방으로 들어섰다. 가겟집에서 흘끗 스쳤으니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사내 하나가 스쳐 가는 조실을 유심히 보았던 모양이었다. 불이 난 곳이 암자이고 보면 스님 복장이라 눈길을 끌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 어제 가겟집에서 보았던…?

아차 싶었다. 이때는 어떡해야 하나?

-그렇소이다. 가겟집에서 뵌 것 같구려.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시구려. 그런데 무슨 일로?

사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실렸다.

-그러잖아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절의 조실스님이라니….

-그럼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될 뻔했구나.

뒤늦게 사태를 알아챈 메모장의 사내가 동료를 쳐다보며 말했다. 역시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말할 나위 없었다. 이미 그들은 이지안 금어의 신상 명세를 파악한 뒤였다.

-불이 난 암자를 창건한 것은 2020년 6월이더군요. 어제 이곳 책임자를 만나려고 왔다가 입수한 것입니다.

역시 메모장의 사내가 말했다.

-그러시오.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죽은 이는 잉지안. 나이가 68세더군요. 맞나요?

-잉지안이 아니라 이지안!

-잉지안! 조사를 해보니 이 절을 지을 때 그림을 맡아 그린 스님이라고요?

-그렇소이다.

-여권을 조사해 보니 체류 기간이 지났던데요?

-연장한다고 하더니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그러니까 연장하려고 하다가 불이 나 죽었다 그 말 아니요?

-일이 그렇게 되었구려.

-그럼 남자 시체 곁의 여인은 공양주가 맞습니까?

-맞소이다.

-시체의 상태로 보아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던데?

-지안스님과 비슷한 연배지요.

-62세?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님의 아내가 아니고 공양주가 맞나요?

-맞소이다.

-그들 사이에 젊은이가 있었다던데…. 뭐 시봉이라고 하던가? 아들이라고 하던가?

-아들이 함께 있었지요.

사내가 메모장을 내려다보았다.

-잉서가윙?

조실스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풀썩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아들 이름이 이석원이오.

-그 스님 나이가 27세 맞습니까?

조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쯤 되었을 게요.

-불이 난 직후 그가 암자를 떠났다고 하던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소이다.

사내가 고개를 또 갸웃하다가 눈을 감았다. 이상하지 않으냐는 표정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내들이 더 무엇인가를 캐물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몸을 일으켰다. 서로 들어가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듯이.

그들이 다시 천추사원으로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다. 그들은 이상하게 공양주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공양주라고 하는 양점순 씨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절 지을 때 한국에서 건너왔다면서요?

나름 저들 식으로 조사를 해보았던 모양이었다. 하기야 여권만 조사해도 그만한 정보는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어제 더 묻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 있을 터였다.

-그렇소이다.

-스님께서 데려왔다고 하던데 나이도 몰라요?

그건 또 어디서 들었느냐는 말이 나오려다가 도로 넘어갔다. 절간 내 누구에겐가 물었을 것이었다.

-공양주 이력서 보고 뽑소이까? 그런 나라도 있소? 이 나라는 그런지 몰라도 내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오.

-그럼 어디 사람이라는 건 알 거 아닙니까?

-한국사람 아니오?

정색하고 조실이 대답하자 사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풀썩 웃었다.

-내 말은 한국 어디서 왔느냔 말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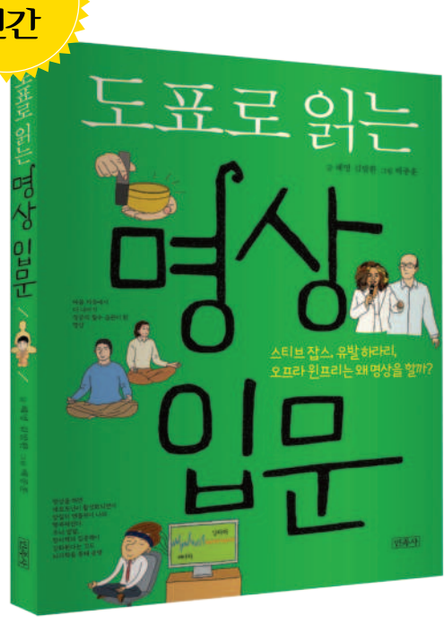
-그걸 알면? 한국의 전라남도를 아시오? 구례읍 영천동 877번지. 60세. 그게 내가 아는 다요? 됐소?

조실이 눈을 부라리고 역정을 내자 사내 둘이 흠칫했다.

-그러니까 스님의 아들이라는 젊은이 말입니다. 공양주의 아들은 아니다 그 말이요?〈계속〉

오프라 윈프리는 왜 명상에 열광하는가?

화제의 신간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중훈 | 192쪽 | 15,800원

"제가 명상을 하면 1000%는 더 나은 사람이 되거든요."
–매일 제 중심을 잡고 저를 위해 명상을 하는 겁니다–

4월 2일(일) 12시 30분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김말환 법사님의 <붓다의 명상> 강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공의 필수 습관이 된 명상!
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마이클 조던은
왜 명상에 열광하는 걸까!
뇌과학을 통해 증명된
명상의 중요성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마음을 바르게 보는 매커니즘을 밝혀 심리 작용을 알려주는 마음 입문서!



●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불교의 깊이와 지혜를 담아낸 본격 불교 교리 입문서!



●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붓다의 생애, 가르침, 역사, 계율, 교단 성립이 한눈에!



●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뜻 모르고 독송하던 천수경의 자상한 해설서!



●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를 일상어로 풀어낸 최고의 불교 입문서!



●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중요 경전(20종)의 요점을 한눈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❻ 생전예수재 上



▶한줄요약

비일상의 불안한 시간에 위신력 있는 불보살에게 의지하는 것은 인간 보편의 심성. 살아있을 때 사후 위해 올리는 예수재와 '저승문 열린다'는 윤달의 결합은 더없이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

비일상의 시간 '윤달'과 '예수재'의 결합

생전예수재, 생전에 만드는 수의

올해는 이월에 윤달이 들어 사찰마다 일찌감치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입재 법회를 봉행한 소식이 분주하다. 백여 년 전인 1917년에 순천 송광사에서 예수재를 행한 기록이 전하는데, 당시의 예수재도 윤이월이었다. 이는 통영에 거주하는 부부를 위한 독설판 예수재로, 윤 2월 2일에 입재하여 열사흘이 지난 14일에 회향했다고 한다. 당시 지전을 만드는 조전소(造錢所)를 설치하고, 각종 번(幡)과 개(蓋), 지화와 서기포(瑞氣布) 등의 장엄을 갖추어 의식문에 따라 봉행한 여법한 예수재였다.

이처럼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백 년 전에도 예수재는 윤달에 주로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재는 사후왕생을 위해 생전에 미리 공덕을 짓는 불교의례로, 본래 특정 시기와 무관했으나 점차 윤달의 대표적인 의례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윤달 예수재'가 성행하게 된 시기는 조선말 근대 초로 추정된다. 그 이전과 달리 1910년대에 와서 예수재를 윤달에 행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의 송광사 사례를 비롯해, 〈매일신보〉에는 대각사 용선스님이 1911년부터 윤달이 드는 해마다 예수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따라서 현재 예수재가 윤달과 짝을 이루어 성행하게 된 배경에 주목해보면, 예수재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법하다.

예수재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행하는 의례로, 다음 생에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과보(果報)를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갚는 성격을 지녔다. 이에 죽어서 행할 일을 미리 한다고 하여 '역수(逆修)'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민간의 풍습 가운데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후에 입을 수의(壽衣)를 생전에 미리 만드는 문화이다. 따라서 '예수재'와 '수의 만들기'는 모두 대표적인 죽음 준비문화라 할 수 있다.

〈삼국지〉 위서에 기록하기를, "고구려 사람들은 남녀가 혼인하면 죽어서 장사지낼 때 입고갈 옷을 미리 만든다"고 하였다. 연로한 부모의 수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의까지 미리 마련해둔 것이다. 수의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목숨 '수(壽)' 자를 쓸 뿐만 아니라, "수의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장수한다"는 담론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불길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히려 죽음을 긍정적 · 적극적으로 껴안아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김으로써 불가항력의 죽음을 극복했던 셈이다.

옛 노인들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수의를 만드는 자식들을 기특하고 흡족하게 여겼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같이 수의 만들기를 거들다 보면, 음식도 장만하고 농담도 해가면서 즐거운 시간이 된다. 죽음을 예비하는 자리에서 슬픔이나 엄숙함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작은 잔치처럼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다.



봉은사 예수재. 지전과 경전을 머리에 이고 중정을 도는 스님과 신도들.

수의 만들기는 이른 시기부터 윤달의 풍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종실록〉을 보면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중전이 하교하는 내용 가운데 "윤달에 의대(衣襨)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의대는 수의를 말하는 것으로, 적어도 1700년대 초에는 윤달에 수의를 장만하는 풍습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윤달문화

그렇다면 윤달의 특성을 살펴보자. 1895년부터 우리는 양력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음력이 일상의 시간을 가늠하는 역법(曆法)이었다. 따라서 음력을 상용하던 당시 윤달의 의미는 지금과 큰 차이를 지닌다. 1년 열두 달이라는 안정된 주기 속에 또 하나의 달이 끼어든다면 일상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일상의 시간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응해온 모습이 곧 윤달문화라 하겠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윤달이면 사면령을 내려 죄수를 풀어주고, 노인과 소외된 이, 의로운 이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지급하였다. 왕이 사찰에 행차해 불공을 올리거나 선왕의 능을 배알하는가 하면, 많은 스님을 모시고 백좌도량(百座道場)을 열거나 액을 물리치는 소재도량(消災道場) 등을 베풀었다. 이는 모두 윤달이라는 불안하고 비일상적인 시간을 안전하고 복되게 맞으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민간에서는 윤달을 공달 · 덤달 · 여벌달이라 부르면서, 이때는 인간사를 관장하는 신들도 감시를 쉰다고 여겼다. 따라서 평소 택일이 따랐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며,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는 담론까지 생겨났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일은 부정(不淨)이 따른다고 보았기에, 수의는 물론 관과 묏자리 준비, 산소 이장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윤달에 주로 행해진 예수재
'산 자의 천도' 역할 담당해
수의 입고 즐긴 축제 성격서
긍정적인 민간 지혜 엿보여

아울러 윤달에는 '저승문이 열린다' 하여 복된 내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성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고창지역 등의 성밟기는 '윤달에 성을 세 바퀴 돌면 저승길이 트여 극락에 간다'는 믿음과 결합되어 있다. 고창 모양성(牟陽城)의 진입로인 북문은 아예 '극락문'이라 불린다. 이는 '인간을 감시 · 심판할 신이 없다→ 저승문이 열린다→ 극락을 갈 수 있다'는 일련의 윤달 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19세기 중반의 〈동국세시기〉에도 "봉은사(奉恩寺)에서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와 불단[佛榻]에 돈을 놓고 불공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 극락으로 간다고 여겨 정성을 다하는데, 달이 다 가도록 이어지는 풍습이다. 서울 외의 여러 절에서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윤달에 불공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풍습이 전국에 성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이처럼 윤달에 대한 관념과 담론은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를 전승시켜왔고, 그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 또한 커지게 마련이었다. 유교에서 감당하지 못한 사후 구원의 문제는 불교의 영향권 하에서 '극락왕생' 발원을 통해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고려시대의 윤달풍습에서 보듯이, 비일상의 불안한 시간에 위신력 있는 불보살에게 의지하는 것은 인간 보편의 심성이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사후를 위해 올리는 예수재와 윤달의 결합은 더없이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작약산 예수재. 바퀴가 달린 반야용선을 타고 즐거워하는 신도들.



고창의 모양성 밟기. ©동아일보사

특히 16 · 17세기에 들어와서 의례를 통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수륙재를 비롯한 각종 천도재가 성행하였고, 예수재 또한 '망자의 천도'와 함께 '산 자의 천도'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약 삼 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의 주기 또한 대형 의례를 연례적으로 치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축제적 예수재

이러한 일련의 죽음 준비문화와 관련해 축제적 성격의 예수재 모습이 주목된다. 먼저 김희균 선생이 기록으로 남긴 1980년대 거제도에서 행한 예수재를 살펴보자. 당시 예수재는 괘불을 모시고 상단 · 중단 · 하단을 장엄하게 차린 채, 범패와 작법을 하는 스님들과 수많은 동참재자가 함께하여 오전 9시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여법하게 치러졌다.

"노인들은 모두 준비해온 수의를 입는다. 이승을 떠나 저승길에 갈 때 입고갈 옷들을 윤달 든 그 달에 준비해두었다가 예수재 날 미리 저승길에 가보면서 입고, 다시 고이 접어두었다가 진짜 가시는 날 자손의 손에 의해 입혀지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의' 하면 '삼베옷' 하던 통념을 깨고 아들딸 혼인식장에 입고 가는 것처럼 울긋불긋 비단옷이 삼베옷 사이를 수놓았다. 그리고 수의를 입은 노인들 모두가 희색이 만면했던 것이다."

동참재자들이 너도나도 수의를 입고 예수재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 또한 마치 잔치처럼 흥겨웠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죽을 때 좋은 옷 입고 가야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좋은 집에 태어난다",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저승길이 순탄하며 이생에 다시 온다"며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에 불교가 기여했음을 깊이 느꼈다고 한다.

예수재가 살아있을 때 미리 사후를 대비하는 의례이기에, 죽은 뒤 입기 위해 마련해놓은 수의가 등장하는 것은 민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죽음을 대비하는 자리를 축제처럼 맞이하는 데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민간의 지혜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모습의 예수재는 거제도만이 아니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성행하였다. 광제사 승범스님은 1990년대 밀양에서 치른 작약산 예수재의 정경을 들려주었다.

당시 큰스님은 대중에게 "오늘은 내 전생 업을 갚는 날이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들 잔칫날이니 흥에 겨우면 춤추셔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부처님 앞에서 춤을 춰도 좋은 날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흔이 넘은 할머니가 나와서 기쁘게 춤을 추었고, 칠십 대의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 흘렸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2018년에 참관한 작약산 예수재에서도 반야용선을 타고 춤을 추는 신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무속에도 망자를 위한 오구굿을 산 자에게 적용하여 치르는 '산 오구굿'이 있다. 산 오구굿 또한 윤달에 주로 행하며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동해안지역에 널리 전승되어왔는데, 학계에서는 예수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굿보다 불교적 색채가 강하여 굿을 주재하는 세습무 집단이나 기주(祈主)들이 불교의례로 인식할 정도로, 무속의 죽음 준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굿을 의뢰하는 이들은 대개 노인들로, 사람이 죽으면 오구굿을 해야 좋은 곳에 간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후 자신을 위한 굿을 확신할 수 없기에 미리 오구굿을 치름으로써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산 오구굿의 구조를 보면 신들을 청해 축원한 다음 영혼을 천도하고, 이를 축하하는 놀이마당을 거쳐 '기주의 극락왕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처럼 예수재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기쁘고 복된 것이라 여긴 민간의 지혜로운 삶과 함께 해왔다. 본래 불교의 천도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환희로운 자리이다. 따라서 '예수재'에서도 '산 오구굿'에서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성은 죽음을 대하는 불교의 전통적 성격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불교와 민속의 성격은 일방의 흐름이 아니라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았음은 물론이다. 예수재에서 산 오구굿이 파생되었듯이, 오랜 세월 기층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굿의 원리 또한 예수재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❻ 존재를 보는 요령–삼신의 원리 (2)



▶한줄요약
2500년 전통의 불교미술을 가로지르는 핵심적 조형원리는 삼신의 원리이다. 바탕자리(법신)에서 장엄에너지(보신)가 일어나고 이것이 삼라만상(응신)을 꽃 피우는 것이다. 무엇이 존재하려면, 먼저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림① '소용돌이의 에너지'로 표현된 '보신'의 모습. 산치대탑(제1탑), 동쪽 탑문의 조형, 인도



그림② 허공(법신)의 바탕에서 소용돌이의 장엄 에너지(보신)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삼라만상(응신)이 피어난다.



그림③ 꽃과 나무, 새와 동물, 그리고 사람 등이 생성된다. 온갖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삼신의 조형원리로 나타내고 있다.

바탕을 보는 게 불교미술 핵심원리

지난 연재에서 '존재의 바탕(법신)과 그것의 예술적 표현'에 대해 언급했다. '바탕 의식'의 특성은 '여여(如如)하다' '고요하다' '순수하다' '청정하다' '반응하지 않는다' '부동(不動)이다'라고 정리한 바 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한) 바탕 의식에 대한 눈 뜸으로 인해, 고통의 개체의식(자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원리를 논했다.

이러한 바탕 의식을 '법신'이라 하고, 대승불교의 불신관 또는 우주관은 법신에서 시작한다. 법신에서 보신이 일어나고, 보신에서 응신이 일어나는 '법신→보신→응신'의 '삼신(三身)의 원리.' 이것이 존재의 원리이자, 불교미술의 원리라고 지난 연재에 소개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법신은 '일원상'으로 표현되고, 보신은 '연꽃'으로, 응신은 중생의 눈에 보이는 '붓다'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 부동의 자리라는 법신에서, 어떻게 보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반응하지 않기에, 오염될 수 없는 청정한 자리!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8천송반야경〉)"는, 그리고 "모양이나 소리로는 찾을 수 없다(〈금강경〉)"는 자리. 색도 모양도 소리도 없는 부동의 자리에서, 어떻게 색과 모양과 소리의 보신이 나오는가. 이는 모순이 아닌가.

보신=자비, 중생을 살피는 마음

필자는 한때 수행처의 법사님들에게 "바탕 자리(법신)에서 보신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십니까"라며 물으며 다닌 적이 있다. '반응 없는 그 자리'와 도무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붓다처럼 반야바라밀다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야바라밀다! 즉, '궁극의 깨달음(지혜의 완성)'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야 모를 일이다. 또 (세세생생 닦아) 그 경지가 설사 된다 해도, 그 경지에서 '중생을 돌아볼 마음(자비)'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법신에서 어떻게 보신이 나오는가'라는 화두를 이해하기 위해, 붓다 득도 당시의 생생한 체험 속으로 들어 가 보자.(지면 관계상, 논지에 필요한 직접적인 부분 이외의 내용은 요약 제시하였다.) 붓다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더 이상 위가 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체득한 후, 숙명통이 나서 자신의 윤회를 본다. 백 천 만 번의 태어나고 죽음의 무한 반복을 목격한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타 중생의 윤회도 목격한다. "나고(生) 죽음을 한량없이 한/ 저 일체 중생 무리들은/ 일찍이 모두 친족이었거늘/ 그리하여 곧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켰네."(〈불소행찬(佛所行讚)〉 '아유삼보리품(阿惟三菩提品)' 중)

여기서 핵심은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중생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것을 '크나큰 자비심(대비심)'이라고 한다. 만약, 득도의 안락함(法悅)에 자신만 스스로 머물렀다면 소승에 그쳤겠지만, 여기서 자비심을 일으킴으로써 대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오랫동안의 소원 이루었거니/ '나' 없는 법에 편안히 머무르리/ 그러나 부처눈〔불안佛眼〕으로 중생을 관찰하고/ 가엾이 여기는 지극한 마음 내어/ 그들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였거니 (중략) 차라리 부지런한 방편 버리고/ 잠자코 편안히 있고자 하였으나/ 돌아보아 본래의 서원을 생각하고/ 설법할 마음 다시 생기었나니."

불교미술 가로지르는 원리 '삼신'
삼신, 일원상–연꽃–붓다로 나타나
〈화엄경〉 등 보신의 장엄 구현해
화폭 자체 알아야 불화가 보인다

붓다는 열반을 증득한 기쁨과 편안함을 토로하는 동시에,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었으나 (아직 열반을 모르는) '중생들이 지극히 가엾어서' 머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 때 '본래의 서원'이 상기됐는데, 그것은 '고통 속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었다.

법신의 두 얼굴, 자수용신+타수용신

여기서 법신은 두 가지 면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궁극의 '깨달음 그 자체'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비롯되는 '자비심'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깨달음의 몸체를 '수용신(受用身)'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을 수용한다는 말인가? 수용의 대상에 따라 수용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내증(自內證)에 머물며 스스로를 즐기는 자수용신(自受用身)이다. 둘째는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것을 수용하게 시키는 타수용신(他受用身)이다. 여기서 타인은 보살을 말한다. 보살을 교화시키는 몸체를 타수용신이라 한다. 보살을 교화하는 부처는 설법하는 부처이다. 하지만, 자수용신은 설법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로자나'와 '노사나'로 나뉘게 된다.

양자는 결국 하나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다. 자칫 하나는 무위(無爲)이고 또 하나는 유위(有爲)여서, 상반되는 듯하지만, 자수용신 안에 이미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성품이 내재 되어 있기에, 이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자수용신을 법신 비로자나, 타수용신을 보신 노사나라고 한다. 보신에서는 무수한 화신이 나와 중생 교화에 응한다. 중생의 구제는 (깨달음의 세계와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법의 교화로 가능하기에, 보신불은 설법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화엄경〉과 〈법화경〉은 모두 보신의 장엄을 말하고 있다. 방대한 〈화엄경〉은 보신 노사나를 묘사하기 위해 참으로 놀라울 만큼 많은 형용사가 동원되고 있다.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토록 다채롭고 장대한 문장들이 무려 60권(〈60화엄〉) 또는 80권(〈80화엄〉)의 분량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중무진의 장엄 에너지를 중중무신의 언어로 기술하고 있다. '화엄(華嚴)'이라는 경전의 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 〈화엄경〉은 '부처의 연꽃(佛華)이 온 세상을 장엄(莊嚴)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고 한다.

바탕을 먼저 볼 것!

〈법화경〉의 '법화(法華)'라는 제명의 뜻도 마찬가지이다. 법화란 '부처의 연꽃' 또는 '진리의 연꽃'이란 뜻이다. 진리의 연꽃을 피워 중생을 제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초기 대승경전이 온통 보신에 대해 역설하고 있듯이, 불교미술 역시 온통 찬란한 보신의 표현으로 충만하다. 법당의 다채로운 장식들, 천정을 가득 메우는 단청 속 그림들, 알 듯 모를 듯 춤추는 문양들, 부처와 보살의 화려한 광배 · 보관 · 천의 등등. 모두 보신의 장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00년 전통의 불교미술을 가로지르는 핵심적 조형원리는 삼신의 원리이다. 바탕자리(법신)에서 장엄에너지(보신)가 일어나고 이것이 삼라만상(응신)을 꽃 피우는 것이다. 무엇이 존재하려면, 먼저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탕을 먼저 보는 것'이 불교미술을 보는(또는 나를 보는, 존재를 보는) 요령이다. 비유하자면, 영화를 볼 때, 영상만 쫓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보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법당이 존재하려면 먼저 허공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허공(법신)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다음으로, 법당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님과 신도의 발원 · 기도 · 시주 · 공양, 그리고 건축을 위한 숫한 재료와 장기간의 노동 등등. 이러한 에너지의 조화는 '보신'에 해당된다. 그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법당 '응신'이 완성된다.

불화를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면 된다. 우리의 눈은 화폭 안에 존상들을 쫓기에 바쁘다. 하지만, 화폭이라는 바탕 그 자체를 먼저 알아야 비로소 불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불화 또는 사경의 바탕은 항상 법신 자리로 설정되기에 감색(紺色) 또는 자색(紫色)으로 칠해진다. 감색과 자색은 깨달음의 색깔인데, '깨달음의 색깔'에 대해서는 추후 연재에서 설명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家寶
青龍, 白虎 도예세트 급매 높이 66㎝ · 폭45㎝ · 둘레66㎝
海東 先生任 傑作品. 安靜과 繁榮을!
보관관리인 010–9011–7230 (가격절충가능)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이안의 Media In Buddha ⑫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한줄요약
〈더 글로리〉는 팟빛 복수극을 넘어 죄에 대한 업보를 저마다 받게 하면서 스스로는 악연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원의 드라마가 된다.

악업은 드러나고, 악인은 벌 받는다



드라마 〈더 글로리〉 한 장면. 넷플릭스서 시청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그리고 그 이후를 다루는 드라마 〈더 글로리〉는 먼저 파트1이 공개 되자마자 세계적 관심을 받았고 파트2까지 공개되는 내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뢰밭에 인물들을 끌어들여 언제 터질지, 어떻게 터질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도록 만드는 김은숙 작가의 촘촘한 대본이 긴장감 넘치는 연출과 만나 폭발적으로 터뜨린 관심작이다. 이번의 지뢰밭은 학교다. 타이틀 롤인 송혜교(문동은 역) 뿐 아니라 매 장면 장면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주·조연 가릴 것 없이 저마다 개성은 개성대로, 합은 합대로 불꽃 튀는 연기가 빚어내는 화학반응은 '밈'이 되어 플랫폼마다 흘러넘치고 있다.

문동은의 팔뚝에는 처참한 화상 흉터를 영혼에는 참혹한 트라우마를 새기게 된 지뢰밭은 학교다. 그 학교에 스스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여전히 묻혀있는 지뢰를 밟고 자폭하겠다는 것은 아닐 터이니 지뢰를 제거하거나, 지뢰를 심은 이들을 벌하거나, 아니면 지뢰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근원 자체를 찾아 책임을 묻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 행위를 대개는 '복수'라고 한다. 그래서 드라마가 처음 시작했을 때 〈더 글로리〉에 대한 초점은 동은이 복수에 어떻게 성공할까에 몰려있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학생 시절에도 약자였고, 평교사가 되어 돌아온 상황에서도 동은은 권력자는커녕 그 언저리에도 있는 존재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동은에게 상처를 새기고, 동급생 소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 5인방은 예나 지금이나 집안, 학벌, 직장, 교육 시스템까지 든든하게 서로서로 뒷배가 되어주며 나쁠수록 더 잘 나가는 어른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나쁜 짓 한다고 바로 잡으려는 어른 따위 필요 없이 나쁜 짓을 없던 일로 만들어주려는 가해자들의 가족과 재력은 흠집하나 없이 탄탄하기만 한데.

그런 지뢰밭에서 웃음기 없이 가해자들을 만나 피해자였던 자신을 기억해 내라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 잘못에 대해 반성하라고 아무리 따져도 돌아오는 건 비웃음인 상황에서 복수라고? 죽이기라도 할 건가? 가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면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드라마, 유혈낭자한 하드고어 슬래셔 장르인 건가?

처음의 이런 짐작과는 다르게 동은은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가해자들을 무너뜨린다. 가해자 5인방 뿐 아니라, 있었던 폭력을 지워버린 조력자들까지 모두. 그들끼리 서로서로 아귀다툼하게 만들어서.

복수라는 건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과 연의 갈래에서 지은 죄는 저마다 업으로 감당해야 한다지만, 남한테 당한 억울하고 사무치는 상처와 피해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이 몸에는 흉터로 남고, 영혼에는 트라우마로 새겨졌는데.

〈더 글로리〉에서 동은은 그 방법을 찾느라 오래오래 공을 들여야 했다. 스스로를 세워 교사가 되고,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되고, 생판 남인 학교 5인방과는 달리 가족이라는 인연에 매인 엄마와의 악연도 피해야하고, 가해자 무리들이 가진 것과 숨긴 것도 다 조사해야 하고. 그래서 고데기로 친구 팔뚝 지지는 것 정도는 웃으며 저지르는 연진이 "너 바빴더라"라고 조롱하며 그렇게 바빠 놓고도 여태 발바닥 아래 계급에 있다고 비웃을 때 "응, 바빴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그 바쁜 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며 고작 동은이 요구하는 건 잘못에 대한 '인정'과 그 잘못에 대한 '자수'다. 살인도 하고 은폐도 한 흉악범에게 얼마나 자비로운 속죄인가? 그리고 가해자는 그 자비 앞에 얼마나 모질고 어리석은가?

그래도 동은은 칼을 잡지도 총을 들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은은 모든 단죄를 이뤄낸다.

동은이 단죄하는 방법은 정말 별 것 아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맺혀진 업의 결을 들추고, 악업을 지은 자들은 자신의 업을 잊지 말라고 일깨우고, 그 악업을 가리는 자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악업을 더하려는 자들은 저들끼리 서로 대적하게 한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끼리 새로 인연을 맺고, 각자 짓눌린 악연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주자고 손을 잡는다. 피해자끼리의 연대가, 권력에 짓눌리고 법에 외면당하고, 날마다 날마다 폭력 앞에 벌벌 떨며 짓밟히던 사람들끼리의 연대가 죄를 벌하는 힘이 되다니!

그렇게 해서 〈더 글로리〉는 팟빛 복수극을 넘어 죄에 대한 업보를 저마다 받게 하면서 스스로는 악연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원의 드라마가 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죄업은 더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보태게 되는 과정은 소중하고 신선하다.

학폭 이후 복수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
공개된 파트 1, 2 모두 세계서 '인기몰이'
팟빛 복수 아닌 業의 결 들춰 죄인 벌해
짓밟히던 사람들끼리 연대, 단죄의 동력

동은은 소아성애자 관음증 교사로부터 가해자들끼리 불륜으로 낳은 딸인 예솔을 지켜주고, 현남을 두고 유학 가기를 머뭇대는 수인에게 '외면'의 가치를 당부하고, 억울하게 가려진 친구의 죽음도 일깨운다. 그리고 박연진의 남편이었던 하도영은 예솔을 진짜 아빠의 품으로 안아든다.

죄는 드러나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 그 정도로 '영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은이 학교에 있는 모습, 예전의 학교에 교사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학교 강의실에 학생으로 있는 모습, 화상 흉터를 가리느라 꽁꽁 가렸던 팔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옷을 입고, 그 흉터 위에는 근사하게 타투를 하고 환하게 웃는다. 동은에게 흉터가 남아있듯 과거는 없어질 수는 없지만, 거기 매이지 않게 된 그 웃음은 한 경계를 넘은 뿌듯함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업을 끊어낸 '영광'의 웃음이다.

근대 이후 학교는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한 교육기관이 된 지 오래니 동시대 전방위적 공동 경험을 일으키는 설정이라 그럴 수 있다지만, 하필 '학폭'이라 더 높은 공감과 몰입도를 자아낸다는 건 씁쓸한 일이다. 학폭이 인류 전체의 어두운 공업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니까.

딱 10년 전인 이맘때, 불교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2013년 3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에 참가한 불자 100여 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서원하는 행사였다. 학교폭력이 오죽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으면 불교계에서 따로 서원을 세우는 행사를 가지기까지 했을까.

또래끼리 다투는 일은 숨 쉬듯, 밥 먹듯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으로 여겨지곤 하는 문화였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투고,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고, 마침내 화해해서 벗으로 오래오래 남는 것이라면야, 하면서. 그 다툼이 학교에서 벌어진 거라면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가 알아서 하겠거니 뒷짐 지는 문화도 있고. 애들 싸움으로 교사 번거롭게 했다가 괜히 자기 아이 밉보일까도 걱정되고.

그런데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 집단적, 가학적 행태가 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 것은 폭력이고 범죄다. 학교폭력, 사실 그 못된 악행은 학교라는 기관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을 것이다. 가족에게서도, 아는 어른들에게서도, 지나가다 눈여겨볼지도 모를 남인 사람들에게서도 동떨어진 장소, 학교. 가는 것이 의무인 사회라면 더욱더.

제한된 공간, 규율화된 권력, 일방적 통제를 전제로 하는 감시 시스템,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익혀 순응적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내용. 이런 것이 근대적 학교의 본질이라고 본 미셸 푸코는 일찍이 학교가 감옥과도 같은 권력기관이라고 통찰했다. 근현대 이전 계급사회에서는 특권이던 교육이 학교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권리다.

국민된 의무이기에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그러니 학교폭력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업인 것이다. 나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저런 애들과 어울려서, 오죽 못났으면 같은 핑계를 세울 일이 아닌 것이다.

〈더 글로리〉 전에도 학폭은 늘 문제였다. 해맑게 웃으며 애교로 유혹하는 아이돌들, 태극기를 달고 국민적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을 누비는 운동선수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되겠다고 사랑과 정열을 담아 트로트를 열창하는 가수지망생들, 정치인이나 관료 부모가 승승장구하려는 길목에서 발목을 잡는 잘 나가지만 망나니인 자식들, 이런 셀러브리티 관련이 아니면 사건사고 뉴스에서 이제는 어지간히 처참하지 않으면 다뤄지지도 않게 된 지 오래다.

10년 전의 서원식에서 당시 한혜원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사무차장은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말고도 방어자, 소극적 방어자, 방관자, 소극적 조력자, 조력자, 동조자까지 여러 층위의 인연이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교화 못지않게 괴롭힘을 막아줄 '방어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동은은 젊고, 최선을 다해 외면하지 않고도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오래오래 바빴다. 동은은 피해자로서 복수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폭력 앞에서 조력자가 되고 방어자가 되었다. 동은의 웃음은 우리에게 요청한다. 방관자가 될 것인지, 방어자가 될 것인지를. 〈더 글로리〉가 누리는 인기와 영광을 같이 기꺼워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복수라는 악업에 짓눌리지 않고도 단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영화평론가〉





세상 모든 것이 여래장묘진여성

〈如來藏妙眞如性〉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⑫ 묘한 진여의 성품

〈원문〉 "아난아,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性)인가 하면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깨끗한 눈으로 청명한 허공을 볼 때는 오직 맑은 허공뿐이어서 툭 트여 아무것도 없다가 그 사람이 까닭 없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눈을 부릅떠 있다 눈에 피로가 일어나면 곧 허공에 따로 어지러운 헛꽃(狂華)이 보이기도 하며, 다시 온갖 헛것이 있게 되나니, 색음(色陰)도 마땅히 이와 같은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아난아, 이 헛꽃이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눈에서 난 것도 아니니라. 만약 허공에서 나왔다면 이미 허공에서 나왔으니 갈 때는 허공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만약 출입이 있다면 허공이 아닐 것이요, 허공이 만약 비지 않았으면 스스로 헛꽃의 일어나고 없어짐을 용납하지 못하리니 아난의 몸에 아난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리라. 만약 눈에서 나왔다면 이미 눈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로 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헛꽃이 눈에서 나왔으므로 마땅히 보는 견(見)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견이 있다면 허공의 헛꽃이 되었으므로 돌아올 적에는 마땅히 눈을 보아야 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라. 색음이 허망하여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닌 성(性)이니라."

〈강해〉 〈능엄경〉 2권 말부터 3권에 들어가면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오음(五陰),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의 이른바 사과(四科)와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견(見), 식(識)의 칠대(七大)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이라는 것을 밝힌다.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란 말이다. 일체 만물이 모두 여래장이라는 것은 여래장 사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두두가 비로요, 물물이 화장' 이라는 화엄대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오음부터 설명하면서 피로해진 눈에 헛꽃(狂華= 空華)이 보이는 것을 예로 들어 이 헛꽃이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 하면서 결론은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고 말한다. 인연은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자연은 원인 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원래 자연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외도들이 주장하는 명제(冥諦)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아난이 외도의 명제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제(冥諦)란 인도의 수론학파(數論學派)에서 내세운 것으로 근본 물질을 뜻하는 프라크리티(prakrti)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순수한 정신 인자(因子)인 푸루사(puusa)와 접촉하여 모든 현상계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 원리를 명제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무리 사유하여도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모른다는 뜻에서 명(冥)이라 한다. 용수의 〈중론(中論)〉에 "모든 법은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며, 그 둘에서 함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생함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諸法不自生 亦不從他生 不共不無因 是故知無生)는 송구가 설해져 있다. 이 송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경에서 비유로 든 허공꽃이 생겼을 경우 색음(色陰)이 이것저것 합해져 생긴 인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자연도 아니다. 말하자면 허공꽃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말인데, 이것을 여래장묘진여성이라 하여 이 성이 시방 법계를 감싸고 있으므로 사과(四科)에서 칠대(七大)까지가 모두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래장의 성(性)은 인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라는 말은 〈능엄경〉 특유의 논법이라 할 수 있다. 〈능엄경〉의 여래장은 불성(佛性)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통 근신(根身)인 유정 쪽에서만 중생이 모두 불성의 존재임을 강조해 오다가 기계(器界)인 천지 만물이 모두 불성이 내재된 여래장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심장과 오장의 주체 의식 깨어남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⑫ 주체 의식

심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나면 눈, 귀, 코, 입, 몸, 생각을 통해 경상이 드러난다. 눈으로는 색깔이 인식된다. 붉은색이다. 시야가 온통 붉은색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붉은색 빛을 인식할 수도 있다. 때론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붉은색 털을 가진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귀로는 소리가 인식된다. 벌레 소리, 종소리, 목탁 소리 등의 다양한 소리가 들려온다. 코로는 냄새가 맡아진다. 천상의 향기 같은 그윽한 꽃향기가 풍겨오기도 하고, 악취가 진동하기도 한다. 입으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 튀어나온다. 몸으로는 초감각이 발현된다. 감각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기도 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몸 상태와 일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각으로는 다양한 현상들이 드러난다. 과거와 미래를 보기도 하고, 다른 세계와 교류하기도 한다.

심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나면 언제 어디서든 임의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능력을 쓰면서 아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심장의 주체 의식을 깨웠으면 그 다음에는 간이나 비장의 주체 의식을 깨운다. 일치시키는 방법은 똑같다. 다만 심장의 주체 의식이 도움을 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깨어난다. 때로는 오장의 주체 의식끼리 서로 부딪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발현시켜서 서로 화합시켜야 한다. 이 또한 장부 순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정이다. 나머지 장부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 드러나는 안, 이, 비, 설, 신, 의의 경상은 색깔의 경상만 다를 뿐 대부분이 비슷하다.

비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는 황색이 인식된다. 간은 녹색이다. 폐는 백색이다. 신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는 푸른색이다. 머리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는 다섯 가지 색깔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오장의 주체 의식 중 어떤 의식이 머리로 올라왔는가에 따라서 드러나는 색깔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 다섯 개의 주체의식이 함께 모이면 금색 빛이 인식된다. 보라색, 분홍색, 갈색 등의 색깔들은 서로 다른 주체 의식들끼리 만났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다.

육장(六臟)의 주체의식이 발현될 때는 여러 가지 경상이 나타난다. 어떤 때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나와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한다. 빨간 옷을 입었으니 이는 심장의 주체 의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의식이 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인식이 생겨나면 외부 의식을 물리쳐야 한다는 적대감을 갖게 된다. 적대감을 갖고 주체의식을 대하면 장부 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장부 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고 일반 사람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6식과 7식의 경계가 무너져서 7식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 원인을 모르게 되면 정신분열이나 빙의 현상으로 오해한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오장의 주체 의식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처음 수행문에 들어선 사람이 이 과정을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혼자서 넘어서는 것은 힘들고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오장의 주체 의식 중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의식도 있고, 명석한 의식도 있다. 그런 경우에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 명석함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둘 다 제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쓰이는 것이 공관법(空觀法)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⑫ 집착 않는 법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 자 없어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만들고 소유하고 버리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도 완전히 소유했다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어,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면서 두려워한다.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럴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는 한, 헤매는 일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태어남은 이루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뜨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기 전에 바른 눈이 없는 사람들과 먼저 대면한다. 그러니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안주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세상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느끼고 보이는 세상을 말하고 있지,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각자가 만지는 부위의 느낌에 따라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에 짓눌리고 있는지, 그것을 벗어날 방도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욕망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종속되어 하나의 부품처럼 사용되다가, 새로운 부품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삶이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찾아 알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자. 이것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을 알려고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세상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자신이 세상이라는 새장에 갇혀있는 새라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세상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빠져나간 사람을 찾아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자신이 한 번도 세상을 바르게 본 적이 없기에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은 세상을 보고 듣는 데 많은 방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방해라고 알지 못하고 도움으로 생각하며 의지하고 있다. 이런 착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감각기관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만을 접하고 살아왔다. 그렇다고 가상세계라는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상세계라고 인지함으로써 마음에 생기는 장애를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가 생기지 않으면 잃는 것과 얻어지는 것으로 공부의 척도를 삼는 일은 차차 줄어든다. 그리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알아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알아야 하는 마음을 낸 것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니,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의 낙처(落處)를 바로 알면, 알아야 하는 그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임을 바로 알게 된다.

"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처럼 환상 같고 꿈 같아, 늘어진 머리카락이 뜨거워지면 휩싸이누나.

이렇게 삼유를 바라본다면 마침내 해탈을 얻으리라."

아무리 그림자 같은 것이라 들어도, 이 가르침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나' 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기에 엉뚱한 방향에서 계속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수행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지만, 간절하게 이것에 대해 듣지 않고, 불필요한 바깥의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갈 길이 아득히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꿰뚫지 못하고 '나' 라는 것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 라는 것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하고 미묘하여, 쉽게 이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그러기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누구 망신?!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마이크 소개 : 법당서 스님 마이크와 본사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염불을 해 볼시 추호라도 광고 내용이 과장이면 법당서 누구 망신....장난감 성능 차이를 확인

마이크는 보물 : 오직! 마이크만 바꿔도 수 천번의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9호 | 17 | 전면광고

여러 하늘의 음식과 복이 언제나
변동함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의 수명이
언제나 존재될 수 있게 하며 출입이
자재할 수 있게 하여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 836번지 약 300평
- 4년 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절터, 산소자리 적합
- 가액 : 3,150만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내 십분 거리 조용한곳
- 대지 : 300평, 사유지 포함 1,000평 가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법당 집기 일체 포함
- 가액 : 2억 5천만원

010-5581-30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농협~시장신협 중간
- 상가 2층 건물 50평 전체(옥상 단독)
- 법당 : 아미타, 다세지. 관음, 지장, 신중, 영단
- 시설 : 종무실, 객실, 공양간, 황토방(편백찜질)
- 주차 : 30평 유료주차 운영 & 2층 50평(포함)
- 가액 : 전세 2천만원 / 90만원(실 월세 약 40만원) 시권 4천 8백만원(절충 가능)

{현법회중}덕망 높은 스님과 인연되었음 합니다.

010-8350-2115
010-4535-2568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건물 외 부속건물
- 가액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찰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 대지 200평, 임대부지 약 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일억 오천(조정 가능)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3757-3699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살분만 전화)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문산면 판문로 378번길 48, 37호 약수암
- 대지 : 약 2천평, 주택 : 2채
- 별도 : 법당 7평, 삼존불, 호신불, 석불(아미타불 6자, 탑 5층 2개, 지하수 1개)
- 매매 : 6억 5천만원

010-3922-7778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 청주시 오창읍
- 대 지 : 1,787평, 극락전 : 30평, 미륵전 : 40평, 살림집 : 30평, 공양간 : 30평, 연못 50평 등 야산 밑으로 공기 좋고, 햇볕도 잘들고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 매매 26억

010-4455-7151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주소 : 통영시 정량동 840-1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 가액 : 1억 8천만원

010-3344-6667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절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5분 거리 42번 국도 옆
- 임야 5,000평, 안에 절터 자리 다수 있음, 대지 300평, 암자 6평, 약초농원
- 산 정상까지 길, 관수, 전기 시설 완료, 산삼급 약초 있음, 산 정상에 평탄작업 가능
- 가 액 : 급양도(상담 후 결정)

말기 암 환자 95% 완치도 있음(산기운이 좋음)

010-7922-20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의 아담한 암자
- 대지 : 약 50평
- 건물 3동
- 뒤에 대밭이 있음
- 가액 : 6천 5백만원 (100년된 용왕당 있음)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조정 가능)

010-6449-9552
010-3640-3128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시내권 등산로 입구, 공원 입구
- 건물 : 상가 2층 건물 중, 2층 약 40평(옥상 단독 사용)
- 구조 : 방 3개, 법당, 주방, 욕실 주차장 : 4대 단독 사용
- 현재 포교당 겸 철학상담, 기치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협의)

010-2727-4684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건 물 안 내

- 청주 시청 앞 9층 건물
- 대지 141평, 건평 1,000평 대출 15억, 매매 15억
- 지하 1-2층 각 층 100평씩

1층 : 로비, 차고, 사무실 / 2층 : 연잎 한정식 식당
3층 : 생광석 찜질방 / 4층 : 식당 / 5층 : 사무실 임대
6층 : 불교 대학 / 7층 : 대웅전 법당
8층 : 사무실, 방송실 / 9층 : 아파트식 주택

최고의 인테리어 시설

010-5883-2255, 010-8569-66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에서 10분 거리
- 종교 부지 243평 건물, 대웅전 27평, 용왕각 15평, 요사채 35평, 화장실 5평(재래식) 전 511평
- 가액 : 5억 5천

010-3845-24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대지 : 약 230평
- 스님, 법사, 보살님도 환영
- 집기류는 그냥 드립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억 2천만원(조정 가능)

010-3415-7833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 액 : 2억 5천만원, 대출 5천만원

010-3875-63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 중 2층
- 법당 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시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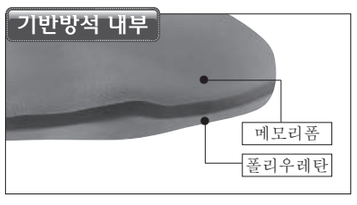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9호 | 18 | 전면광고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처럼 여기고
중년의 여인은 누이처럼 여기며
젊은 여인은 딸처럼 여겨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본생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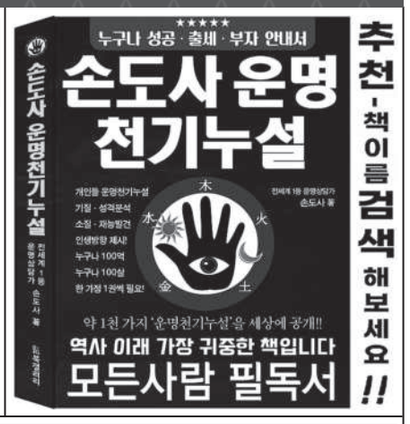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정재(淨財)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발원 하옵니다.
신실한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생활할 공동체 마을을 조성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담보 제공과 이자를 드리겠으며 시주와 기부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신도 5계에 저촉되는 업과 관련 있는 재화는 받지 않습니다.

해월산 在禪居士 합장 010-7572-5358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결혼상담소

나라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인연만나 행복을

010-5624-1365
02-306-7988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6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강법사)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해오름 건축 · 중기

- 한옥/구들 시공/황토방 시공
- 미니 굴삭기(u20), 집게, 브레카
- 매립, 철거, 배관, 조경, 토목
- 소형 운반차(덤프) 임대, 판매
- 궤도운반기 소형 임대, 판매
- 원만성취로 보답하겠습니다.

010-7772-7886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⑤ 산수유꽃차

신장과 소양인에 좋은 꽃차
〈腎臟〉

산수유는 층층나무과 층층나무속 낙엽 활엽 소교목이다. 꽃은 암수 한꽃으로 3~4월 잎보다 먼저 피고 노란색이며, 열매는 장과로 긴 타원형이며, 종자는 타원형으로 8월에 성숙한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 주산지는 전남 구례, 경기도 이천, 여주, 양평, 경북 의성군이며, 구례는 조선시대에 산수유를 처음 심어 주산지가 되었다. 〈삼국유사〉에는 "도림사(道林寺)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같다' 라는 소리가 들려 왕이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나무를 대신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용부위는 꽃과 열매이며, 약용 또는 차로 사용한다.

성분과 약성

산수유 열매에는 코르닌(cornin), 벨베나린사포닌(verbenalin saponin), 탄닌(tannin), 우르솔산(ursolic acid), 사과산(malic acid), 비타민 A 등이 함유되어 있다. 산수유는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으며 맛이 시고 떫다.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보익(補益)하는 효능이 있어서, 신장과 생식기능의 감퇴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야뇨 · 두훈(頭暈), 이명과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은근히 통증을 느낄 때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또 정기(精氣)를 수렴하여 유정, 빈뇨, 이뇨, 현기증, 이명증 등을 치료한다. 허리와 무릎통증에 효과가 있다. 진액이 빠져나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다스린다.

마음 · 기(氣)작용

〈동무유고〉 '동무약성가' 에서 밝힌 산수유의 약성은 '신장의 정(精)을 잡아주고 골수를 보태주며, 신허(腎虛)로 인한 이명(耳鳴)을 낫게 하고,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멈추게 한다.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기(腎氣)를 곧게 한다(澀精益髓, 腎虛耳鳴, 腰膝痛止, 健腎直腎.)' 이다.

산수유꽃차는 신장의 정을 잡아주고 골수를 보태주며,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기(腎氣)를 곧게 하는 소양인의 꽃차이다.

소양인은 노성애정(怒性哀情)으로, 밖으로 나가서 일 벌리기는 좋아하지만 마무리가 부족하다. 맛이 시고 떫은 산수유꽃차는 소양인의 신장(腎臟)의 기운을 도와서 온화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한다. 소양인은 비장의 기운이 크고 신장의 기운이 작은 비대신소(脾大腎小)의 장국으로, 비장의 수곡열기는 많은데 신당(腎黨)의 수곡한기는 부족한 사상인이다. 따라서 산수유꽃차는 작은 장부인 신장의 수곡한기를 잘 흐르게 한다.

즉, 산수유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기(腎氣)가 곧게 순행하도록 돕는데, 이는 수곡한기의 정해(精海)와 관계된다. 수곡한기는 대장에서 액(液)이 생성되어 생식기 앞의 액해(液海)로 들어가고, 액해의 맑은 기운이 입으로 나아가 정(精)이 되고, 정(精)이 오줌보(방광)로 들어가 정해가 되며, 정해의 맑은 즙을 신장이 빨아들여서 신장의 원기를 보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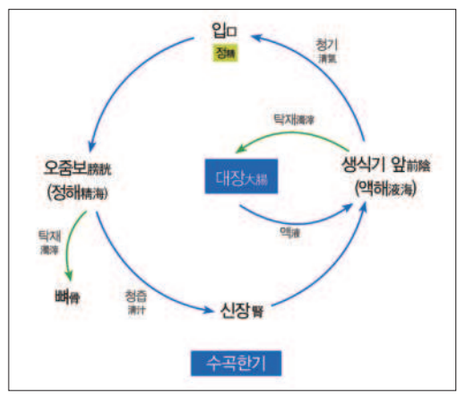


산수유는 오줌보의 정해를 충만하게 하여 허약한 신장의 기를 보익함으로 유정, 빈뇨, 이뇨, 현기증, 이명증 등을 치료하는 것이다.〈위 그림 참조〉

또한 산수유는 간의 기능을 보익하며 허리와 무릎이 아픈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에서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되고, 혈해의 맑은 즙을 간(肝)이 빨아 들여서 간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산수유는 혈해를 충만하게 하고, 뼈에서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 생성을 도와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제다 및 음용

산수유는 꽃과 열매를 차로 제다하여 음용할 수 있다. 꽃은 3~4월에 갓 피어난 꽃 봉우리를 채취한다. 중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산수유꽃차를 완성한다. 또 산수유 열매는 10~11월 과실이 빨갛게 성숙하였을 때 채취한다. 산수유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는다. 씨를 제거한 후 중온에서 수분을 건조한다. 고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산수유차 우림은 산수유꽃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로 우린다. 또 산수유 열매와 숙지황, 산약, 구기자를 블렌딩할 수 있다. 산수유 3g, 숙지황2g, 산약 1.5g, 구기자1.5g에 물 1000ml를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0여 분 더 끓인다.

산수유차 블렌딩은 간과 신장이 기가 부족하여 어지러움증과 이명증, 허리와 무릎이 연약하고 시릴 때, 정액이 유실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병증에 도움이 된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먼저 산수유꽃차에서 탄고구마 향과 시래기 삶은 향이 났으며, 은은한 단맛이 돌면서 고구마 탄 맛이 났다. 두 세잔을 마시고 난 후 목이 마르고, 혀가 따가운 증상이 나타났다.

다른 시음자는 산수유꽃차에서 시골의 바람 같은 향이 나며, 한 잔 마시니 고향의 품같이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정겨운 맛에 절로 엄마 품에 있는 듯 감상에 젖게 한다. 마시고 난후 입안에서는 단맛과 함께 약간 떫은맛이 나면서 갈증이 느껴졌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첫 잔에서는 시래기 삶은 맛이 나고, 시래기 말린 냄새가 났다. 첫 잔을 마시니 코가 시원해졌다. 두 번째 잔에서는 시래기 맛과 구수한 맛이 나면서 속이 편안하고 트림이 났다. 소화가 잘되어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은은한 밝은 노란빛을 띤 우림한 차에서 말린 고구마 향이 났다. 첫 잔에서는 삶은 밤고구마 맛이 났으며, 빨려 들어가는 단맛이 났다. 두 번째 잔에서는 살짝 단맛도 났다. 다른 차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고 밋밋하였다. 속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시고 난 후에 끝 맛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났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연예인불자 신행일기 ③ 만담가 장광팔

뗏목을 버려라

왕십리 단우물 근방에 살고 계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나는 1950년대 말 심인당(心印堂)이라는 절에 다녔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참 특이한 절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울릉도에 본찰이 있는 대한불교 진각종 심인당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였다.

그곳 법당에는 불상도 없고 법단에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이란 글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가부좌를 틀고, 왼손의 검지를 세워 오른손으로 말아 쥐고, "옴마니반메훔"을 30분 남짓 염송을 하면 딱! 딱! 딱! 전수님의 짧은 죽비소리와 함께 몸을 편히 쉴 수 있었다. 염송만 하려 하면 왜 그렇게도 콧잔등이 가려운 지 30분이 참으로 길게만 느껴지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다.

한 번은 가족들이 집에서 염송을 할 때마다 적립해둔 불전을 심인당 불전함에 넣고 오라는 어머니 심부름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하필 '만나당' 아이스케키 장사를 만난 것이다. 주머니에 있는 불전 중 절반 정도를 꺼내어 아이스케키를 사서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달게 먹고 나머지 절반만 불전함에 넣었다. 심부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혹여 배달사고가 들통날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집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설상가상으로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는 내 좌우명은 그때 어린 마음에 새겨진 작은 깨달음이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를 따라 수륙재의 근본도량으로 알려진 진관사에 다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계(戒)를 받고, '삼소(三笑)' 라는 법명을 받았다. '삼소' 란 고승 혜원(慧遠)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동진(東晋)의 고승 혜원이 수행정진을 하던 동림정사(東林精舍) 밑에는 '호계(虎溪)' 라 불리던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혜원이 찾아온 손을 배웅할 때 이 호계를 건너가면 호랑이가 울었다고 한다. 그래서 혜원은 손님을 보낼 때는 이 개울을 경계로 하여 그곳 너머로는 절대 배웅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도사 육수정(陸修靜)을 배웅하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다



사진제공=장광팔 씨

무심코 호계를 건너고는 호랑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문득 이 사실은 깨달은 세 사람이 파안대소하였다는 고사로 이를 배경으로 그린 동양화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 에서 따온 말이다.

"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그 공덕이 수승하다"는 말씀으로 스스로 위안하며, 그저 초하루와 보름 법회에만 겨우 참석하는 이른바 날라리 신도였지만, 이런 연으로 만담가 장소팔 선친으로부터 사사한 만담을 통해 장사익 선배님 등과 함께 산사음악회의 단골 사회자가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여성조선〉에 장만세(장광팔이 만담으로 본 세상만사) 기사를 연재하며 진행한 큰스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승한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불심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수락산 도안사 선묵 혜자 스님께서 청담 큰스님 시자승으로 계실 때의 일화이다. 큰스님께서 출타를 하셨는데, 노보살 한 분이 쟁반에 떡을 소복이 담아 오셨다. 그런데 때마침 법정 스님 등 몇몇 젊은 스님들께서 큰스님을 뵈러 오셨다가, "이게 웬 떡이냐"며 말릴 겨를도 없이 후다닥 접시를 비워냈다. 다음 날 큰스님이 돌아 오시자마자, 마침 노보살님이 쟁반을 찾으러 오셔서 "큰스님! 떡은 맛있게 드셨어요?" 하며 여쭈니, 큰스님이 의아해 "무슨 떡?" 하고 되물으셨다. "어제 올린 늙은 호박 버무리 안 드셨어요?" 하며 공치사를 하는 노보살 옆에서 시자스님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큰스님께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달게 잘 먹었어"라고 답하시니 노보살이 흐뭇해하며 쟁반을 들고 나섰다. 이에 선묵 시자스님이 여차저차 상황을 말씀드리며 "왜 보지도 못한 떡을 달게 잡수셨다"고 하셨는가 여쭈어보니,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방편이란다" 하셨다고 한다. 큰스님께서는 〈법화경〉의 〈방품편〉을 이 해프닝을 예로 들어 쉽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일화를 듣고, 나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

〈중아함경〉에서 붓다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일단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려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뗏목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닐진대, 다시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비로소 마음에 새겼다. 얼마 전 인연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의 국악분과를 맡게 되었다. 이 뗏목을 타고 언제나 전법의 강을 건너 목적지에 이르러 뗏목을 태울꼬?

전재영(연예인전법단 사무국장)

일일시호일

추락으로 턱뼈·대퇴골
골절되며 꿈도 무너져

몇 차례 수술로 뼈에 철심 박고 입안에도 나사못 8개 심어
회사·네팔 스님 배려에도 1300만원 병원비 남아 귀국도 못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❸ 매순간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행복



▶한줄요약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개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우리들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아야 나도 세상도 함께 편안해져"



'행복하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지금도 어린 시절 그때가 떠오른다. 할머니와 김을 매다가 힘들면 밭 둑 잔디밭에 누워 흰 구름 떠다니는 하늘을 바라보던 모습이다. 아지랑이 아롱거리고 나비와 잠자리가 날아다니던 그때가 내 기억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다가온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다. 이처럼 '행복하다' 라고 하면 우선 먼저 기억 속에 어떤 상황이 함께 떠오른다. 언덕 위 바위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본다든가, 길가 노란 수선화와 복수초가 환하게 피어있는 모습, 까치와 참새 떼가 날아다니는 것 등,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행복과 관련된 이런 현상들은 자연 속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자연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에는 온갖 험담들이 난무하고 때로는 거칠거나 듣기 거북한 말들이 오간다. 우리들 인간네 삶 자체 대부분이 사람들간의 대화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언어들의 정화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즐겁거나 슬프거나, 화를 내거나 사랑을 나누는 등 대화 없이 이루어지는 삶이란 결코 없다. 그러므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기쁨을 준다면 이러한 대화는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개 '행복' 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우리들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는 아마도 선뜻 '그렇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희망과 꿈을 이루고 욕망을 충족시키려 애쓰면서 기쁨과 만족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망과 후회를 경험한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픔과 후회의 감정을 안고 살기도 한다.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는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욕망이 동기가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경우이다. 욕망이 동기가 되는 경우는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로 무엇인가 성취하기도 하지만 끝내는 나를 망가뜨리게 된다.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경우는 에고가 용해되고 자만심이 없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욕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성취에 대한 자만심이 생겨나거나, 감정적 집착이나 무관심 때문이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통찰적 이해를 하여 가치 있는 것들을 수용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의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의식이 확대될 때 사랑과 봉사와 같은 고귀한 정신을 갖게 되며, 나를 포함하되 나를 너머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진정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환경을 이롭게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마음을 잘 챙길 수 있을 때 더욱 증진될 수 있다.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가? 명상은 마음을 다루는 수행 방법이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 느낌, 의지, 의식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요가명상의 성인 파탄잘리는 "마음은 나무에 앉은 두 마리의 새와 같다"라고 했다. 한 마리는 가지에 앉아서 생각하고, 느끼며,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것을 '행동하는 마음' 이라고 한다. 다른 한 마리는 가지에 앉아서 생각하고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관찰하는 마음' 이라고 한다. 의식은 마음이면서 다른 마음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마음이므로 행동하는 마음과는 비동일시가 된다. 명상하는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존재한다. 행동하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이다.

인간의 삶에서 행복은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늘 사용하는 언어에서 손쉽게 일어나야 한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여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대화의 과정에서 저절로 소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행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인간의 삶에서 행복은 가장 필요…행복은 일상적 인간 관계서 이루어진다
행복은 마음 잘 챙길 수 있을 때 더욱 증진돼, 명상은 마음 다루는 수행법
명상, 자기 내면 만나 자각하는 것…자신 관찰해 알아차릴 때 바로 일어나
갈등과 위기 순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 기적이자 파워

행복은 '좋은 느낌' 의 다른 표현이다. 대화를 하되 의식이 깨어있는 좋은 느낌의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대화는 일반적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말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다. 우선 내 마음이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 살펴보자. A라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60킬로미터로 달리는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B라는 운전자의 자동차가 불쑥 튀어나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다고 하자. 그 순간 운전자 A는 놀라고 당황하며 옆 차를 바라보자 화가 나서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운전자 B도 "뭐야 이 새끼야, 너나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끝내 둘 다 운전석에서 나와 멱살을 잡고 난투극이 벌어진다. 차는 부딪치지 않았으나 사람이 부딪쳐 더 큰 사고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명상으로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게 될까? 명상은 자기의 내면을 만나 자각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자신을 관찰하여 알아차릴 때 바로 일어난다. 우선 운전자 A는 "어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좀 더 천천히 운전했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한다. 골목길에서 나온 운전자 B도 "어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골목길에서 나오니까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한다. 비록 상대방 차로 인해 생긴 일이지만 그쪽에 마음을 두기보다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면 바로 이런 대화가 오갈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라고 묻게 된다. 상대방 탓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말하니까, 운전자 A도 "괜찮습니다. 댁은 어떠세요?"라고 반응한다. 두 사람 모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어 대화를 하니 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흐름이 바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그만큼 명상은 삶의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삶속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기적이자 파워인 셈이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명상이 반드시 필요한 큰 이유중 하나이다. 명상은 그렇다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다.

필자는 하루의 행복을 위해 면도 명상을 한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명상자세로 앉아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전기면도기로 면도를 한다. 턱부터 시작하여 코밑으로, 오른쪽 얼굴에서 왼쪽 얼굴로 얼굴 곳곳에 안부를 묻는다. 눈을 감은 채 모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얼굴과 만나니 얼굴 곳곳을 섬세하게 만날 수 있다. 10여 분 정성스레 면도를 한 뒤 감사한 마음으로 세수를 한다. 이렇게 나 자신을 보여주는 얼굴과 매일 처음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내려놓는 것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올라가는 데만 익숙해 있지, 서서히 내려오는 법은 잘 모른다. 사실 자기가 쌓은 지위에서 내려오고 모든걸 내려놓는데 행복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이란 짐을 지고 오래 지고 있다가 벗어놓을 시기를 고민중이었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힘들지만 계속 짐을 지고 있었다. 오랜 시간 짐을 지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지쳐서 고갈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나를 내려놓아야 나도 세상도 편안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최근에 이사장직을 맡을 적임자를 찾아서 내 짐을 내려놓으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비로소 버리고 비우고 떠날 때 가벼워지고 행복감이 서서히 밀려오는 걸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또 생각하니 이제 다시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지난번 칼럼에서 한라산에 올라갈 때는 최정상인 백록담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내려갈 때는 출발지가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제주국제명상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상담과 명상으로 '세상' 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일을 멈출 때는 '참 나' 를 만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참 나' 를 만나는 일을 주로 하고 회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온전히 '나를 바라보는 삶' 이다. 그러면 짐을 내려놓거나 설령 놓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매 순간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를 한다면 저절로 행복이 솟아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회향하는 비결인 것 같다.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신규프로그램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불법(佛法)유턴
매주 (월)12:00, 20:30
(토)19:30



죽음에서 배우는 삶
매주 (수)13:00, 20:30
(일)22:50



남을 위해 기도하라 – 자비도량참법
매주 (수)14:00, 22:30
(토)07:30



아름다운 사람들
매주 (수)09:30, 21: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매주 (목)09:30, 21:30



구구절절 주련 이야기
매주 (화)15:30 / (목)14:30
(금)23:25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9 호 현대불교 21
2023년 3월 29일(음 윤2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못났든 잘났든 참자기로부터 은산철벽은 뚫릴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 소녀가 길을 걸은 얘기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녀가 걸은 길은 너무도 진리였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한마음으로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그 소녀는 항시 응시했으니까요.

옛날에 어느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소녀는 위로 윗분들, 아래로 동생들, 또 부모가 다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산골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붕을 만들고 풀을 깎아서 이어야 했고 또 그 안에는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등상을 매고 그 위에다 풀을 깎아 말려서 거기 놔야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길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불법을 모두 우습게 생각하고 기복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자르는 데 가서 잘라 놓은 나무의 가지를 항상 낫으로 다가 매끈하게 잘라 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가지는 한데 합쳐서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솔방울은 솔방울대로 또 따서 한데 합쳐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무가 하는 소리입니다. 소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를 자르게 된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서 잘랐잖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자르는 거나 진배없이,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어쩔 수 없잖아. 너도 바로 나고 나도 너니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너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가 또 나로 인해서 편리하게 잘 수 있다면 좋아." 그러고 대답이 왔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낫으로 자르면서도 "어린 동생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잖아? 이걸 가지런히 다 눕혀서 등상을 매야만이, 또 풀도 이렇게 두껍게 놔야만이 우리 동생을 뉠 수가 있지." 하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그러니까 낫으로 곱다랗게 요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잘라 내." 하거든요. 옹이가 진다면 풀잎을 깔아도 아픔이 오니까 그것을 매끈하게 자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기라는 얘깁니다.

이게 잔소리 같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껍데길 벗기면 바로 나의 살 껍데기를 벗기는 거와 같아서 참 마음이 안됐습니다. 결국은 "야, 껍데길 벗기면 아프잖아." 하고서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도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나도 눈물을 흘리잖아. 네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나잖아." 하는데 "눈물 흘리는 것 좀 봐." 하는 순간, 그 소녀가 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진물이 묻어나고 흘렀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날 아버지가 가지런히 해 놓으신 거를 갖다가 연결해서 등상을 매고 그 풀 깎아 놨던 거를 거기다 두둑하게 깔았습니다. 깔고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날은 좀 추웠습니다. 등상 맨 그 바닥은 땅바닥이었죠. 그러니까 웅덩이를 이렇게 파고선 거기다가 솔방울 삭정이를 넣고선 불을 질러 놓고 거기다 젖은 나무를 놓게 되니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니까 그 연기 나는 것을 소녀의 아버지가 바깥으로 굴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소녀가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지붕 사이사이로다가 별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불 놓은 그 울 안에는 따뜻한 기가 항상 이렇게 자기의 몸을 스쳐 갔습니다.

그랬는데 소녀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아래서는 나를 따뜻하게 해 주는 저 불빛, 따뜻하게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밝게 비춰 주는구나. 그런데 위를 쳐다보니까 저 지붕에서는 별빛이 또 저렇게 밝게 비춰 주는구나. 누가 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소녀는 너무 아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 한 친구, 한 식구기 때문에 저렇게 따뜻하게 해 주고 또 비춰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찌 모두 각자 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최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렇게 하면서 수없는 나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모두를 벗들로 생각을 하고 나무 한 잎 한 잎도 벗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 소녀가 하던 그것을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최초에 지수화풍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성을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듯이, 모태로서의 우리는 전부 친근감을 갖고 있고 한 식구, 한마음, 한 생명, 모두 이렇게 한마음으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떼 놓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내가 산다' 고 하고 각자 살지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복입니다. 기복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 놨는진 모르지마는 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인간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으며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었을까. 그 어린 소녀의 머릿속에는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불교라는 것도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도 없었는데 그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건 천연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그 위력이 얼마나도 광대무변하고 참 묘한지,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 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연구를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행도 해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체험이 갈 리가 없죠.

우리가 불이 가설이 돼서 다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코드를 꽂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코드를 꽂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모터를 돌리려면 모터의 코드를 꽂아야 하고 또는 내가 컴컴하다면 불을 켤 수 있게 코드를 꽂아야 하고 또는 어떠한 전기 기구를 쓰려면 그 코드를 꽂아야만 합니다. 내가 수천수만 가지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관을 통해서, 어저께 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습도력이나 온도력이나 자동력이라든가 또 전자력이라든가 통솔력이라든가, 이 통솔력이라는 건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 지혜로움이라든가, 통신력이라든가 이런 자동력, 이 자체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항상 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물질만 가지고 이거다 이거다 하고서 요렇게만 돼 있지마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서 앞으로 성장이 된다면 5차원, 6차원, 7차원의 그 차원이 높아져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정말이지 개발된 우리 인간의 삶에 생동력 있는 보람을 느낄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내가 나갈 줄 알고 내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할 줄 알아야만이,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한생각 낼 줄 아는 것이 말하자면 법이 되는 것이지 우주 천하가, 전체가 한데 합쳐져서 한마음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이 한생각을 낸다고 해서 어찌 우주가 달라지고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 어린 어떤 소녀도 그렇게 해 나갔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또 본보기로 생각하면서 나 자체가 그대로 그 소녀가 한 일을 본받아서 항상 진행해 나갔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나 우리가 7차원의 차원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 결론은 우리의 능력이 바로 이 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대천세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천세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며 수많은 별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 은하계의 능력도 바로 우리 한 점의 마음의 능력과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없이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둘이 아니요, 능력이 크고 작음도 둘이 아니요, 가고 옴이 둘이 아니요, 또는 물질 자체가 둘이 아니요, 바로 마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겁내지 마라! 모든 것은 한생각에 달렸다

☞ 21면에서 계속

음 자체가 둘이 아니요, 생명 자체가 둘이 아니니 살아나가는 그 자체도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로 비화될지도 모릅니다마는 정녕코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은하계도 우리 한 점의 마음에서 좌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를 지금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진화력으로써 진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나오던 그 물질, 그 생명들에 의해서 이 모습으로도 나오고 저 모습으로도 나오고 쓸데없는 모습으로도 나온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고 이익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이랬지만 그건 유전자의 발전이지 무전자로 하여 유전자로, 유전자로 하여 물질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게 무전자가 있기 때문에 무전자는 수만 개를 해 놓을 수도 있고 수만 개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무전자이며, 또는 유전자라는 것은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만들 수 있는 자체, 그 무전자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유전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로 하여금 또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신비한 연구를 해서, 생물학자도 그렇게 연구를 했고 철학자도 또는 과학자도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물질 자체가, 지수화풍 자체도 모두가 생물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에 나가고 있는 이 마음들이 전부, 무슨 말세가 됐다는 둥 무슨 파동이 온다는 둥, 지금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풀 한 포기 생명도 다 앗아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조절을 누가 하는가. 그것은 대천세계와 더불어 그 속의, 한마음의 한 점의 도리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살아나가는 이것도 과학이 발전이 돼서 좋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좋다고 하기 이전에 좋은 거는 좋되 만약에 생명이 많이 앗아진다면, 우리들이 없고 무슨 발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있고 존재하면서, 지속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 근본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든 것대로 물질로다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거를 무전자로서의 그 유전자의 능력으로, 또는 현실에 물질로 나온 우리 인간의 한 점의 마음이 그 모든 쓸데없는 거는 없애고, 진화시켜서 모습을 없애는데 그 근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차원을 진화를 시키면 바로 딴 물건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개를 축소해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로서의, 물질과학으로서의 쓸데없는 거 만 개를 버리고 한 개를 세계적으로 쓸모 있게 만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루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유루의 물질로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합이 똑같이 균형을 맞잡아 나가면서 균등하게 항상 지혜가 무기가 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동적인 능력, 진화력 또는 전자력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몸에도 다 오관을 통해서 오온의 그 뜻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능력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축소해서 좋은 물질로서 나와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익을 서로 도모하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무전자로서의 자원을 끌어들인다면, 예를 들어서 굼벵이가 매미가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무전자로서 어떻게 매미가 되는지 그 과정, 그 찰나는 모릅니다, 모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거기의 첨단을 넘어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 사는 데에, 엊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굼벵이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 한 식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 식구기 때문에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모든 것은 한생각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매미가 됐다고 해서 이 매미는 자기가 굼벵이었는 걸 모르고 굼벵이의 식구가 자기의 식구였다는 걸 모르고 또 자기가 지금 매미의 식구가 된 거를 매미는 매미대로 모르고, 차원에 따라서, 바로 계발되는 데에 따라서 진화가 돼서 모습을 바꿔서 자꾸자꾸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인간의 참뜻을 알고, 우리가 그 참뜻을 안다면 영원한 무루의 그 진화력이나 무루의 그 참, 무전자를 알아서 그 무전자의 뜻에 의해서 전부 한 우주간 법계를 통하면서 자동적으로 용을 할 수 있는 한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북상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차원의 차원을 지구에서 꼭 가질 거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삼 년 전서부터 이 계발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중세계의 은하계가, 가까이 있는 그 은하계가 지금도 한 몇 미터가 아래로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몇 미터라기보다도 지금 킬로수로 말한다면 한 5킬로나 6킬로, 7킬로 이렇게, 9킬로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내려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7차원의 맞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원력도 그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차원적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게, 어떠한 별성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 아닌 게 없고 우리의 몸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아님이 없고 우리 부모 아님이 없고 우리 동생 아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 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 어떠한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 천차만별로 나투기 때문에, 그리고 옮겨 가기 때문에
> 주인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불이 말입니다, 산불이 나 보십시오. 먹을 게 있으면 수천수만 톤을 막 그냥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원자의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불이 타 들어가다가 불씨가 온통 산을 다 집어먹을 수도 있는 건데 능력이 없다면, 바로 거기에 먹을 게 없다면 그냥 시들하게 꺼져 버리고 말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항상 체가 없는 마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주어져 있는 것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계발을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는 얘깁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의 티끌처럼 돼 있는 그 불씨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 여건의 언어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바로 그런 언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 하나를 눌러서 하는 것도 인간의 조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스위치 하나를 눌러서 그것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사람의 한생각에 의한 조작이라는 생각을 할 때 누구나가 자기 죽자고 그 스위치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것도, 생명을 앗아 가는 것도 다 한 스위치에 달렸다고 하지마는 죽으려면 자기도 포함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주 풀포기 하나 남기지 않고 생명들을 다 죽였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습만 없어졌다 뿐이지 그 생명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살던 그 차원의 습에 의해서 '혼'이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심어지고 저기 가서도 심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튼튼하다면, 원자력이 튼튼하다면 바로 원자로서 전자를 끌어들이면서 그 전자에서 끌어들인 그 자체를 끌어들여서 생산한다면 자원도 풍부하게, 공업도 풍부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가 튼튼치 못한 까닭에 전자로 하여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의 공부, 근본적으로 무전자의 들이고 낼 수 있는 광대무변한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까지만 간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무전자에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자원을 풍부하게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그 점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 모습은 지금 여기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생긴 모습을 잘 아시죠? 색경을 보시고 면경을 보셔서 잘 아시죠? 내가 키가 크다 작다, 어떻게 생겼다 이러는 거를 말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뜻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얼마만치,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수만 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으로도 만들 수가 있지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선신의 모습, 부처의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물건의 모습,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첨단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의 생김생김과 모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고 둘이 아님이 없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무전자의 바로 자동력이라는 그 뜻입니다. 쓸데없는 생명들이 지금 여기의 자원을 잡아먹고 있는 폭이나 마찬가집니다.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자원을 지금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자원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폭이죠. 공기가 탁하게 되고요.

그러는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 한생각에 달려 있으니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우리는 전자의 선지식들이 배운 것처럼, 앞서 배운 것처럼 배우셔야 됩니다. 근래에 가르치는 배움이라는 것은 꽁꽁 언 얼음에다가 펄펄 끓는 물 한 바가지 갖다가 붓는 형국이니 봄이 온 거보다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봄이 온다면 꽃도 피고 얼음도 녹을 텐데, 창창한 물이 자연적으로 그냥 흐를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에 끓는 물 한 바가지 부어 봤자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자원이 튼튼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인제는 기복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복을 벗어나서 내 원자에 근본적으로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해 나갈 수 있어야만이 내 몸도 지탱하고 잘 끌고 다닐 수가 있고 남의 몸도 좀 끌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 내 몸을 끌고 다니지 못하는데 남의 몸을 어찌 끌고 다니며 내가 길을 모르는데 남을 어찌 리드해 나가겠습니까. (녹음 안됨)

오늘 여기에 더 이어서 얘기를 하려다가 그만 그 길을 놓쳤습니다. 까맣게 그냥 길을 놓쳤습니다. 하, 그랬으니까 오늘 요것으로써 끝내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마는 이 주인공은 어떠한 목표가 세워져 있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 그리고 옮겨 가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걸 아셔야 하고, 여러분이 남한테 화두를 받아서 공부한다면 절대적으로 은산철벽을 넘지 못하고 뚫지 못한다는 거를 진짜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참자기로부터 그 철벽은 뚫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그렇게 찰나찰나 자기가 화해서 나투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마는 만약에 그 모태인 내가 없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로부터 이 세상이 모두 생겼고 나로부터 이 세상을 알았고 나로부터 이 세상을 알았으니까 했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못난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고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는 데 의의가 있고, 생동력 있고 또 삶의 보람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18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학교폭력, 자비명상으로 대처하자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성장통 정도로 치부됐던 과거 학교폭력
현재는 폭력 내용들 복잡하고 '흉폭화'
교우 간 문제 아닌 학부모가 개입되며
부모 권력 따라 학생기록부 기재 영향

"모든 생명은 죽음과 폭력 두려워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폭력 경계해야
폭력은 비불교적… 삶 피폐화하는 범죄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의해 드러난 것은 학생들의 미소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민낯이었다.

최근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아빠찬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학교폭력 근절 요구가 더욱 거세지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사이버폭력 대응강화부터 피해학생의 보호까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질풍노도 시기의 성장통으로 치부했다면, 작금의 것은 폭력의 내용이 복잡하고 흉폭하여 심각한 지경이다.

교우 간에 일어난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학부모가 개입되는 복잡한 사건이 되었다. 똑같은 폭력사건을 처리하는데 개인마다, 학교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고, 부모의 경제력과 권력에 의해서 대학입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주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폭 사건을 기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피해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입은 심리적 고통으로 같은 자리에 화살을 두 번 맞게 된다.

이러한 불만을 평등하게 해소하겠다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2020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여기서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적 지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학교장의 책임 아래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학교 교칙에 따라서 지도하고 처벌하면 된다.

문제는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처럼 문제 학생이 일진 써클을 만들어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고데기나 담뱃불로 신체의 일부를 지지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교육적 지도 차원을 넘은 범죄행위이다. 이런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 학폭 전문변호사, 상담사가 피해 사건을 심의하여 악질 가해학생은 경제적 피해배상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하고 보복 피해, 협박 등을 방지해야 한다. 폭력을 받는 피해학생은 평생 우울증, 불안, 좌절, 두려움 등의 고통을 겪는다.

근래 학교폭력의 추세는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통을 주는 부도덕성과 반인권성의 심각성에 대하여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회가 주최가 되어 고운 말을 사용하는 운동과 언어습관을 교육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폭력의 원인은 가정환경에 큰 영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격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고,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삼독심 때문이다. 삼독심을 없애는 길은 명상수행이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 지혜를 일으키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자비관법은 분노심을 없애준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큰 해악이니 다른 생명체를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채찍에 맞고 아프지 않는 자가 없듯이 자신에게 가해질 채찍질을 생각해서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고 폭력의 해악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모든 폭력은 비불교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인간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범죄행위이다.

社 說

상월결사 새 시작, '전법 합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마무리되었다. 인도불교의 8대 성지중에서 7대 성지를 도보로 연결한 전대미문의 불사다. 상월결사는 '움직이는 불교, 활기찬 불교, 적극적인 불교'를 표방한다. 이 방법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나아간다.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과 함께 호흡하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며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였다.

인도에서는 인도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었고, 인도정부의 불교성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약도 받아냈다. 순례단은 출재가자가 모두 도반이 되어 정진했고, 순례단에서 취재하는 이들이 감동하여 개종할 정도로 진실한 모습으로 한발 한발 나아갔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끝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불교의 소극적인 모습, 사찰로 찾아오는 이들에 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가가는 불교로의 전환이다. 3월 23일 회향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전법합시다'는 외침은 불교사의 일대 전환점이 바로 인도순례임을 보여준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서 발표된 108원력문에 근간하여 전법 포교를 위해 108배와 예불의식이 변화하고, 생활 속에서는 순례에 사용된 공양게 등이 활용된다. 청년 포교를 위한 적극적인 찾아가는 불교로 지역별 포교방법이 제시된다. 말로만 하는 불교가 아닌, 스님들부터 불자들이 모두 모여 대학, 가정을 방문하고, 초청하여 이들이 불교와 인연맺는데 앞장선다.

한국불교는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시작에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있다. 전법 합시다.

인도도 불교 중흥 씨앗 뿌리내리길

불교가 태동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것에 대해 학계는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한 불교 파괴활동을 비롯해 △현학적 교리에 매몰돼 민중과 괴리 △불교의 힌두화 등을 꼽는다.

어디까지나 학설이지만, 여러 정황상 현재까지 제기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며 인도의 불교가 쇠퇴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불교는 인도 내 소수 종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상월결사 인도순례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불교문화교류행사를 통해서는 불교가 인도인의 심성(mentalité)임을 알 수 있게 됐다.

인도의 가장 하층계급인 불가촉천민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는 방편으로 불교공동체를 창립해 불교를 신앙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순례길 곳곳에서 꽃비를 뿌리며 확인했고, 몇몇 불교도들은 상월결사를 순례를 따라서 불교성지 순례를 시작하기도 했다.

3월 22일 인도 뉴델리 인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 특별전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연결고리가 바로 '불교'에 있음이 확인됐다. 실제 한국 음악과 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익숙한 인도의 Z세대에게 한국불교는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불교문화교류행사들은 인도에 다시금 불교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데 국경이 있겠는가. 지금 한국불교의 전법원력이 인도 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오등동사지 발굴 이야기

음력 2월 초가 되면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아득한 바람의 궁전에서 제주를 찾는다. 영등할망은 보름 동안 제주의 땅과 바다에 풍요와 생명의 '씨 뿌림'을 한다. 그러면 복수초와 매화를 시작으로 동백 · 수선화 · 유채 등 바람의 꽃들은 기운을 차리고 그 향기를 강렬하게 내뿜는다.

봄바람이 살랑거려도 아직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기구한 사연을 가슴에 담아둔 씨앗들도 있다. 이번 오등동사지 발굴에 따른 이야기들이 그렇다. 우선 이번에 출토된 자기류 가운데 청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주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제주불교의 문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청자는 전남 강진에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가마터에서 제작한 상위층 문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자를 소비할 만큼의 제주불교와 고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머물렀을 것이라 짐작된다. 어떤 인물일까?

그리고 이번 발굴에서는 북송시대에 제조된 동전 꾸러미도 일괄 출토됐다. 북송은 960년에서 1127년까지 중국에 있던 왕조다. 차례로 보면, 북송 진종 함평년간 (998년~1003년) 주조해 발행된 함평원보(咸平元寶)와 북송 인종 황송년간(1039년~1054년) 주조해 발행된 황송통보(皇宋通寶), 북송 영종 치평년간(1064년~1067년) 주조해 발행된 치평원보(治平元寶) 등이다. 특히 함평원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에서 주조했을 만큼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 화폐였다.

더불어 공주 신원사 오층석탑을 해체 복원(1975년)하는 과정에서 목이 긴 병과 함원통보, 황송통보가 발굴되었다. 그리고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유적 고려시대 대형 적심 건물지에서 치평원보가 출토(2013년)되었다. 이런 사례는 오등동사지 연구를 이들과 연관 지어 진행해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탐라)는 고려가 새롭게 한반도의 강자로 부상하면서부터 사신을 주고받았다. 탐라의 사신은 고려 국가축제인 팔관회에 참석했을 때도 송 · 여진과 함께 환대를 받았다. 탐라는 고려 초기까지는 사실상의 독립국이었다. 그러나 고려 조정이 지방 호족을 지배 체계에 편입시키며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해 나가자 탐라국 역시 차츰 지방 행정 단위로 편입되었다.

고려 이전에도 탐라는 국제교류가 활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시 건입포 항구에서 발굴된 오수전이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산지항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던 중 오수전, 화천, 대천오십, 화포 등 중국화폐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이 화폐들이 사용되었던 시대가 오수전은 B.C118~621이고, 화천은 왕망이 만든 것으로 사용 시기가 아주 짧아 서기 14~40년에 불과한 것들이라 탐라국 초기에 활발한 해외 교역을 증명해준다.

이처럼 이번 오등동사지의 발굴은 불교문화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탐라사 특히 고려 중 후기 격변기의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는 개발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역사의 씨앗을 다시 땅에 묻는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제주의 가장 큰 불교 유적인 수정사 터가 도시의 주차장으로 변모했고 그 유물들을 항파두리 야외와 박물관에 흩어 전시되고 있다. 따라서 옛 사찰 터의 발굴이 종교적 편향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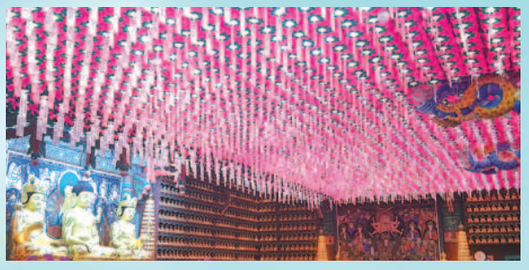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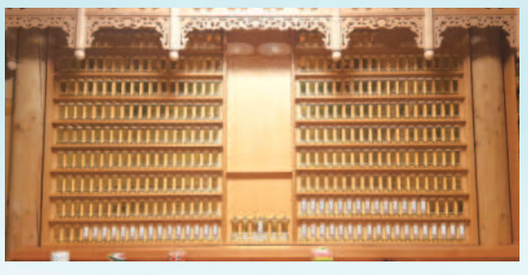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

원만회향을 축하드립니다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